

# 문화 만개

여름호

vol. 05  
2017. 07





문화·예술 분야 별들과의  
진솔한 진로 토크쇼

# 꿈소 FASHION SHOW

2017

7/25[thu]-7/28[fri]

2:00[pm]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4일간]

7.25 팝핀현준 공연예술가;

Tue 춤춰라! 희망이 온다

7.26 이종범 만화가;

Wed 꿈에 관한 세가지 질문

7.27 채사장 작가;

Thur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불편한 지식들

7.28 조선희 사진작가;

Fri 사진, 길고 깊은 연애의 시작

진행 김소영(대구MBC FM정오의 희망곡 DJ)



주최, 주관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접수

7.10(월)부터 선착순

대상

만 11세 이상 청소년 및 가족

참가비

각 3천원

문의

584.8721~2

드라마클래스 참가자들이  
14주 동안 함께 모여 배우고 만든  
연극 '어머니의 뒷모습'은  
갈등과 화해를 보여주는 가족 이야기로  
배우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는 힐링 드라마입니다.

[창작극]

# 어머니의 뒷모습

2017. 7. 14. 금 오후 7:00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주최 | 달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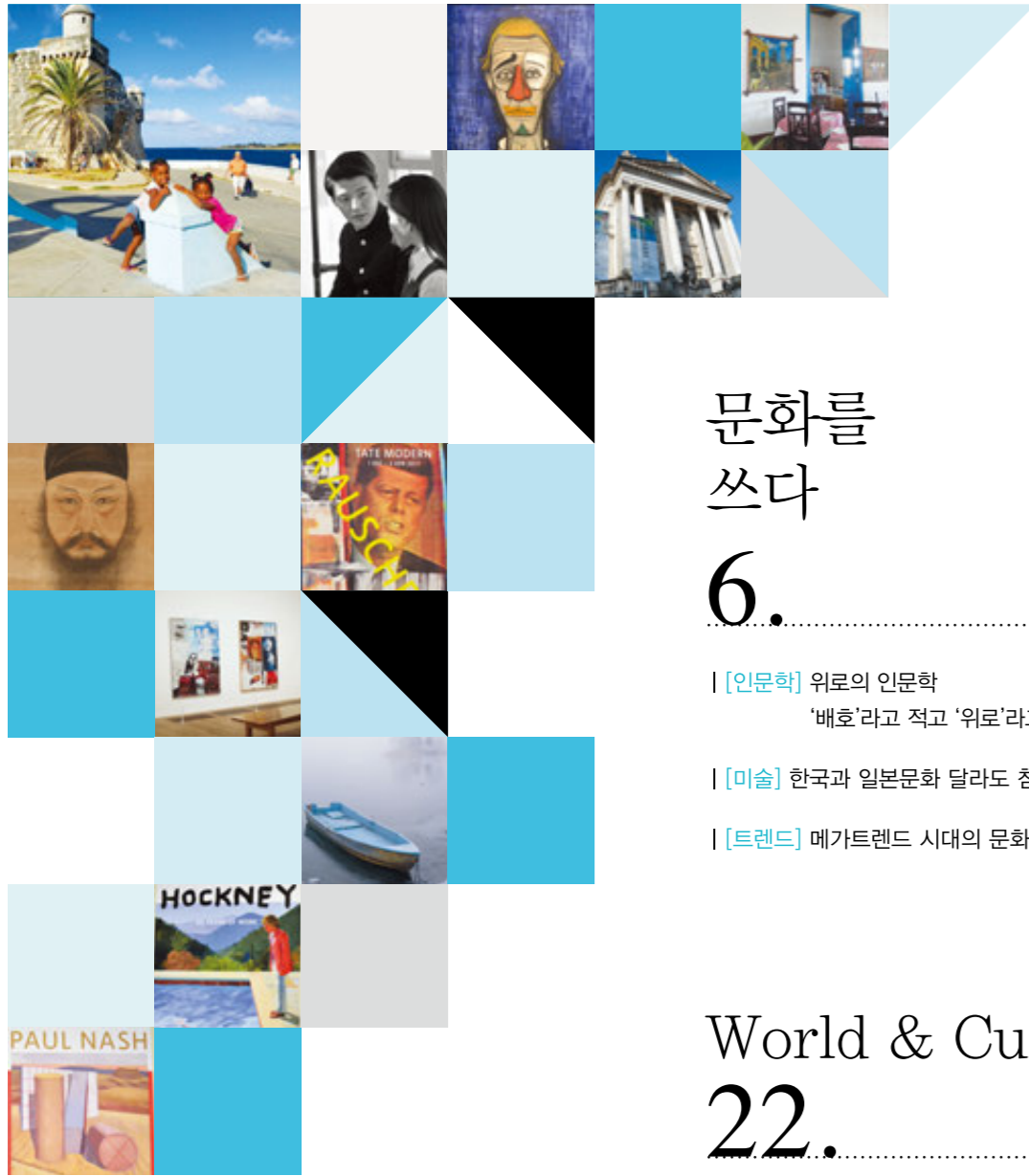
후원 | 교육극단 콩나물

문의 | 053.584-9711



원작\_정성희 연출\_이용희 조연출\_김경진 조명\_채승훈 음향\_이현욱, 강수진 무대\_김태완  
등장인물\_안남선, 유용자, 이은주, 안지연, 김경진, 안혜영, 유선민





## 문화를 쓰다 6.

- | [인문학] 위로의 인문학  
'배호'라고 적고 '위로'라고 읽는다\_최재목
- | [미술] 한국과 일본문화 달라도 참 다르다\_이성낙
- | [트렌드] 메가트렌드 시대의 문화예술\_이영란

## World & Culture 22.

- | 톨스토이에게 길을 묻다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야스나야 폴랴나> 영지를 가다  
\_박정곤
- | 헤밍웨이와 쿠바\_신 영



### Coverstory

김우진작  
평범한 사슴(250x160x90cm, Stainless steel, 우레탄 채색)  
2017 미술의 숲 야외조각전 전시작.

목차

# Contents

발행인 |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이병배  
기획/편집 | 김은주, 윤혜원, 이주현, 궤은정  
발행일 | 2017년 7월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2F  
대표전화 | 053)684-9711~2  
홈페이지 | www.dsc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2017년 VOL.5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 Inside Culture

# 34.

- | [영화] 시인의窓, 윤동주를 그리며\_김중기
- | [음악] 클래식 음악가의 삶\_권순훤
- | [유럽미술기행] 런던과 파리에서 만난 특별한 회고전\_김영동
- | [에세이] 산길 물길 사람길이 함께 흐르다\_권다현

## Arts & Artists

# 58.

- | [전시] 권기철 초대전 '세상을 그리다'  
야외조각전 2017 '미술의 숲'
- | [공연] 스테판 피 재키브 & 지용 DEAR CLARA  
2017 JAZZ IN DAEGU FESTIVAL  
봄바람 콘서트
- | [특강] 인상적인 인상깊은 인상주의  
- 예술아카데미 '예감 시리즈' 중에서

## 열매를 맺으며

# 70.

|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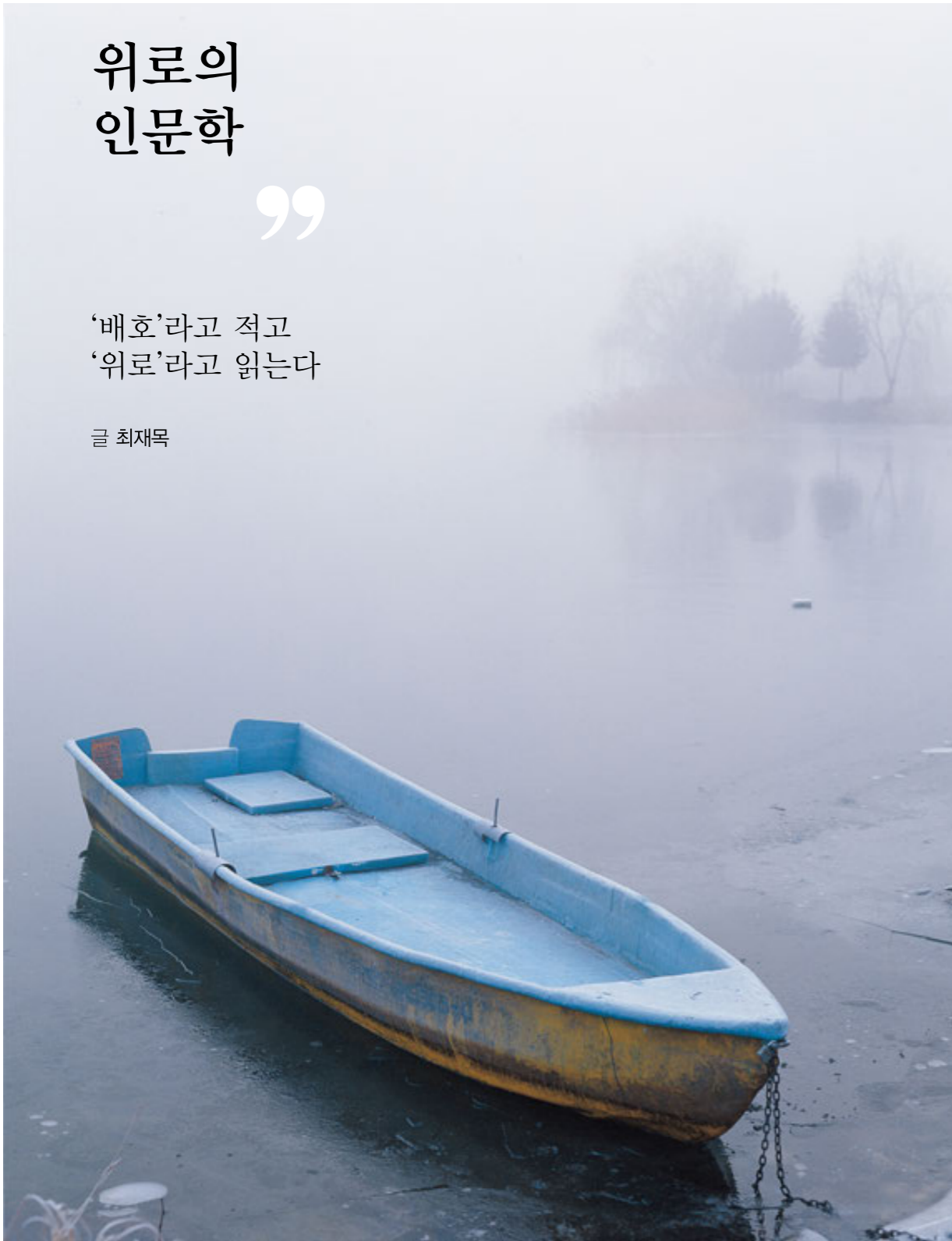
“

## 위로의 인문학

”

‘배호’라고 적고  
‘위로’라고 읽는다

글 최재목



### 나를 키운 팔 할은 ‘바람’(風), 그래서 어찌라고

서정주는 ‘자화상’이란 시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라 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풍진(風塵), 바람과 먼지 아니라, 나는 바람 ‘풍(風)’ 자를 살짝 ‘바람’(希望)으로 고쳐서 읽기도 한다. 삶은 ‘꿈=바람=희망’ 쪽을 쳐다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꿈=바람=희망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서글퍼진다. 차라리 ‘꿈 없이’ 산다면 더 넉넉하게 살 수도 있는데... 50을 넘기고서 이 말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꿈을 쳐다보며 ‘꿈, 꿈...’하며 참 많이도 애달파하곤 하였다. 문제는 꿈이 아니라 몸이다. 몸이 마음을 적절히 한계 지운다. 바라보고 멈추어야 할 선(線)을 쳐 준다. 흔히 몸이 아프면 생각들이 쉽게 정리 될 때가 있다.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이 금방 정리된다. 그렇다 나의 존재(몸)가 의식(생각)의 머리채를 쥐고 흔든다. 원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허탈할 때, 허망할 때, 절망스러울 때, 흔들리면서 오히려 나는 나다워진다. 내가 규정한 것들, 애써 설계한 것들, 당당하게 쳐놓은 담과 방어선들이 형편없이, 처참하게, 허물어질 때, 내 자신이 가깝고도 잘 보인다. 나 자신을 가린 장막-연막이 걷히고, 덕지덕지 달라붙은 때가 씻겨나가면 맨살이 보이기 때문이다. 심장과 핏줄의 맥박과 살아있는 신경들을 정직하게 만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살로 피로 신경으로 살아서 생각하고, 쓰고, 말하고, 무언가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을 ‘오롯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나를 만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마시고 먹는 이 몸.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한정된, 이 몸은 사실 하나의 위대한 경전이다. 이 경전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피와 살과 신경’이 살아있는 동안 읽어낼 수 있다. 분노로 부르르 떨리고, 실패와 별리로 쓰리고 아플 때, 비로소 나라는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자신의 힘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울어라! 아파하라! 슬퍼하라! 그래도 된다. 괜찮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나를 아주 제대로 읽고 있는 셈이다. 정독(精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다 읽힐 수 없는 것, 읽히지 않는 것이 몸 아닌가.

### 몸, ‘아홉 개의 구멍이 난 상처’

인도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는 인간은 그저 아홉 개의 구멍을 가진 상처라고 보았다. 몸은 상처=아픔의 구멍이 송송 뚫린 발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 발을 알고 경작하는 자라 한다. 『바가바드 기타』란 거룩한 분(Bhagavad)의 노래(Gītā)를 모은 고대 인도의 경전으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Mahābhārata)』 제6권에 속하며 18장, 700송의 시로 되어 있는데, 기원전4~2세기경에 성립하였다.



우리 몸은 아홉 개의 구멍 난 상처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젓 달라 밥 달라...하며 구걸하고, 먹고 싸고...하면서 세상을 더럽힌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애지중지 돌보거나 아끼며 톡톡따닥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뿐인가 타자들의 상처에 자신의 상처를 들이대거나 문지르며 상처 입히고, 소통하고 위로받으러 아주 떼를 쓴다.

백석이 시로 간략하게 말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흰 바람벽이 있어」中)라고. 지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 이 세상에 돌아나는 풀도, 아름다운 꽃들도, 달도, 별도, 삶도, 아픔이고 슬픔이면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읽는다면 잘못이다. 오독(誤讀)이다.

08

## 애절한 ‘그들’의 노래, 배호에 앵콜! - 나의 아비투스(habitus)



나는 60, 70년대 초중고 시절부터 4차 혁명을 이야기 하는 지금까지 배호의 노래가 좋아서 부르고 있으니, 말이나 되겠는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나의 위로는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이었다. 시골에서 태어나 클래식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삼촌들과 형들을 따라서 LP판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배호 노래를 듣고 자랐다. 말하자면 그게 나의 아비투스(무의식적인 성향, 관습)다. 나만이 아니라 60, 70년대 한국사회 혹은 그 이후에도 있어 왔던 무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꽃 피는 봄날, 문득 나는 내 속에 자리해왔던 배호(1942-1971)의 노래를 정리하고 싶어졌다. 그동안

어지간히도 불러왔으나, 이제 그것과도 좀 결별하고 싶다는 뜻이다. 아무리 작은 결별이라도 결별은 아픈 법.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참 많이도 헤맸었다. 그때마다 배호가 지켜줬으니, 그놈의 의리 하나는 지켜야 하는데...

한 마디로 배호 노래는 나에게 애절한 ‘그들’이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들이 있듯, 드러나는 삶에 따라 붙는 어두운 구석이었다. 그것은 필시 우리 사회의 그늘이기도 했으리라. 몸이 아프면 신음(呻吟)이 있듯, 사회가 아프면 소리가 있는 법. 소리는 ‘세상의 음악’(世音)이고, 시(詩)이다. 그래서 음악은 사회의 스토리 텔링이고, 시대의 색깔이다. 세상이 아프면 소리가 아프다. 나는 노래가 들려주는 그들과 아픔을 나의 그들과 아픔으로 오버랩 시켜 읽어오고 있었다. 그 노래가 나였고, 내가 그 노래였으니, 그런 무조건적인 동질감 속에 나는 한마디로 ‘노래처럼 애절’해져 있었다. 그만큼 내 속의 그들을 좀 지위보려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기회에 ‘나라는 한 인간의 고백록’ 같은 강의를 통해, 씻김굿 하듯 그 노래들을 툭 툭 다 털어내고 싶었다. ‘꿈’이 야무졌다.

마침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위로의 인문학 : 배호라고 적고 위로라고 읽는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다섯 차례 진행했다. (4~5월) 무겁고 실험적인 주제라, 두려웠다. 배호를 모르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췌! 아무데서나 배호 노래를 부르면 아주 영감 취급을 받으니, 아니 심지어는 격이 떨어지는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내 경험에서 나온 소리이다.

알려진 배호 노래를 들으며, 설명을 곁들이면서, 차츰 강의의 맥락을 잡아갔다. 물론 배호 노래로만 채운 것은 아니었다. 그 전후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도 살펴보기 위해,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으로도, 그 관심이 뻗어나갔다.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덧붙태질 수밖에 없었다. 모두 배호 노래의 사회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불운의 천재 가수 배호. 그는 29세에 요절했다. 재능 있는 시인이거나 가수 중에 서른을 채 못 넘기고 29세에 죽은 사람이 많다. 배호도 그렇다. 그 만큼 애뜻하고 애절하여, 오랫동안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배호는 건재하다. 배호의 노래를 다시 음미하며 나는 한 시대를 풍미하던 노래, 그 ‘절망과 좌절’이 지향하던 ‘희망과 위로’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아마도 나는 그 언저리 팔부능선 어디엔가 그늘처럼, 마른 나무 동치처럼, 조용히 투영돼 있었으리라. 사실 내가 그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가 나를 호출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 다섯 묶음, ‘절망=희망’ 레이아웃하기

배호의 노래를 통해 타자로부터 위로받기보다, 자신이 자신을 위로하는, 내가 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일을 생각해보려고 했다. 배호의 노래를 ‘위로의 인문학’으로, 아니 내 생각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여서, 다섯 묶음으로, ‘절망=희망’을 레이아웃 해보려는 것이다.

### ● 제1강 : ‘사랑’ - 퇴락 · 죽음을 건너려는 맹목적 의지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 그리고 퇴락과 허무를 건너려는 인간힘이다. 유한한 생명의 인간들이 죽음이라는 부재를 건너서려는 수단이다.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더 사랑하기 마련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불안, 외로움, 쓸쓸함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임을 말해준다. 타애(他愛)보다도 자애(自愛)가 고조되고 있다는 말이다. 사랑은 나의 욕망을 남에게 투영하여 나를 확인하려는 것, 그래서 맹목적으로 나를 영속시켜가려는 전략이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모두 ‘나의 그림자’인 셈이다. 애인도, 자식도, 재산도, 정치도, 지적인 노력도, 음식도, 명품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그(그것)로부터 감이 아니라 울이 되어가고, 결국에는 그 감이 울인 나를 먹고 튀어버린다. 사랑하는 대상은 늘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철새이거나 이 항구 저 항구를 떠도는 배이기 때문이다. 하여, **‘철새나 배를 사랑하지 마라,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 노래 **잊을 수 없는 여인 / 만나면 괴로워 /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 마음의 그림자 / 밤안개 속의 사랑**



● 제2강 : '터벅터벅 걸어가는' - 체념 혹은 달관의 걸음걸이

배호 노래에서 참 소중한 어휘를 발견하였다. '터벅터벅'. 터벅터벅은 의태어이자 의성어이다. 몸에 힘을 빼고, 아니 '힘이 빠져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무표정하게 걷는 체념=달관의 걸음걸이이다. 자발적 체념으로 해서 달관에 이른 모습이다. 비유하자면 거지가 됨으로써 철학자가 된 것과 같다. 존재론적이 아니라 인생론적 소유(逍遙遊)이다. 터벅터벅은 화두를 거머쥐고 진리를 찾아 떠도는 선사(禪師)들의 발걸음에서도 보이는데 한 자어로는 득득(得得), 특특(特特)이라 한다. 비포장 시골 논둑밭둑의 황토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걸음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보행에서 어김없이 따라붙는 표현인 터벅터벅은 '지향-목적'을 다 내려놓은 것이다. 그것은 영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기도 하다. 한국인 특유의 어법이다.

● 노래 추억의 오솔길 / 황토십리길 / 굿바이 / 영시의 이별 / 울면서 떠나리 / 울고만 싶어 / 조용한 이별

● 제3강 : '당신' - 나의 그림자 · 썼다가 지울 이름

유독 우리말 속에 '당신'이 많다.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인칭 대명사인 당신은 '상대방=너'를



아주 높여서 부르는 것인데, 참 다양하게 쓰인다. 상대를 낮춰서 부르거나("당신 말이야..." 식으로) 매우 높여서 부르거나("당신께서 주신..." 식으로), 사랑하거나(애인, 부부 간), 밉고 짜증나서 싸움을 할 때도 당신이라고 한다. 특히 노랫말에서 쓰이는 당신은 주로 '그립고', '떠나고', '만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다. 당신은 나의 그림자이자 '썼다가 지울' 이름, 아니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다. 그런 당신 앞에서 나는 운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그리워한다. 당신이 '부재'의 대명사였듯이 낙엽, 비, 파도 등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떠나고, 떠돌고, 부서지는 것. 그리움 끝에 머무는 당신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당신에 대한 의식도 차츰 변해 왔다. 당신을 객관화하고, 나와 대등한 관계로 이해하게 된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갈대를 따라 흔들리는 그림자가 나의 그림자임을 알게 된다. 당신으로부터 내가 독립되어 나오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나의 격(格)을 얻게 된다. 나와 동등한 인격자인 당신이기에 나와 당신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이 위로받으려 들지 않는다. 이후 '당신들의 천국'이나 '당신(너) 고소할거야!'라는 삿대질처럼, 사회적, 정치적 당신도 나타난다. 당신이란 표현법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숙되어 나오는 문법을 얻어낼 수 있다.

● 노래 당신 / 그 이름 / 기적 슬픈 새벽길 / 다뉴브강의 잔물결(사의 찬미) / 비겁한 맹세 / 파도 / 안녕

● 제4강 : '파란 · 낙엽' - 데카당스의 손놀림 · 손수건, 60-70년대의 세기말적 사조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가버리는 / 당신의 이름은 무정한 철새"라는 노래처럼 낙엽도 철따라 오는 철새를 닮아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에서 알 수 있듯, '낙엽...가버린...사랑' 서로 어딘가 닮은 한 가족 어휘들이다. 낙엽에서 우리는 종말=종언=멸망=퇴장=허무의 냄새를 맡는다. 낙엽의 이미지는 전이(transition)

혹은 재해석의 떨림(바이브레이션) 과정을 겪는다. 한국사회라는 시공간에서, 우리의 에토스-마인드와 만나, 낙엽이라는 어휘가 새롭게 감성적으로 '짐'을 당한다. 그림-모양 등의 시각적 대상을 '글'로 표현하는 기법 같은 것이다. 고기(魚)가 봉새(鵬)로 바뀌는 『장자(莊子)』의 물화(物化)에서 보듯, 'A→B→C→D→E→F...' 식으로 사물-사건이 전이되어 가면서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림이 들리거나 글로 쓰여지는 것, 음악이나 시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창조가 탄생하듯, 낙엽은 우리의 친밀한 어휘-이미지들과 결합하면서 60, 70년대 아니 그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배호의 노래가 '파란낙엽'처럼 애달고 쓸쓸하고 슬픈 것만이 아닌 까닭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초상(肖像)이기 때문이다. 유년의 사진첩을 뒤지다가 발견한 내 추억의 흑백사진 같기 때문이다.

● 노래 황금의 눈 / 안개 낀 장춘단공원 / 마지막 잎새 /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 파란 낙엽

● 제5강 : '비' - 대지의 품에 안기려는 슬픈 헛발질 · 비극의 박자

비만큼 다양한 은유를 가진 것도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눈물=이별, 배신, 별리의 아픔, 눈물울음, 슬픔, 고독, 우울' 혹은 '슬픔, 분노, 절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씻김, 해소, 정리, 정화, 가라앉음, 차분'을, 나아가서 비는 '행복, 사랑, 은총(時雨, 가뭄에 단비, 봄비)' 혹은 '낭만(개인 뒤의 밝은 날을 기대하는), 희망'을 은유한다.



나는 '비'를 '대지의 품에 안기려는 슬픈 헛발질 비극의 박자'라고 단정했지만, 그것은 비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 대지(땅)를 적시는 것처럼, 남성적인, 성적인 은유를 생각해서이다.

구스타프 크림트의 그림 '다나에'를 생각해본다.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오스(Acrisios)가 딸 다나에(Danae)를 지하의 청동으로 된 방에 가두어 놓고 어떤 남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자,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우스는 황금 빗물로 변신하여 그녀의 두 무릎 사이로 스며들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비-빗물은 천상=남성이 성으로 대지를 지배하는 은유이다.

비는 하늘이 대지의 인간에게 내려 보내는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애로운 하늘의 눈물이다. 유학(儒學)의 '유(儒) 자도 '빗물에 수염이 젖은 사람'을 말한다.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나오는 빗속의 경쾌한 남성의 춤에서 보면 비는 대지의 품에 안기려는 기쁘면서도 슬픈 헛발질이다. '시우(時雨)=가뭄에 단비=은총'. 비는 한편으로는 희망이고 한편으로는 절망이다. 자신을 남에게 던져서 자신은 죽고 남을 살리기(=적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극이면서도 비극의 박자라 표현하였다. 우리 가요사에 비 노래는 수도 없이 많다. 특히 배호의 비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래서 '대지의 품에 안기려는 슬픈 헛발질 비극의 박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 노래 비오는 남산 / 비 내리는 명동 / 막차로 떠난 여자 / 비 내리는 경부선 / 돌아가는 삼각지



## 배호 노래, 우리 현대사의 『시경』

희망과 위로는 절망과 좌절의 저편에서 서로 대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따뜻하게' 응시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희망과 위로가 보인다. 이때 배호의 노래가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선다'='조용히 말을 걸어 온다' 중국 고대의 『시경』이 당시의 영혼들을 달래는 대중가요이자 위로의 시편(=노래)이었듯이, 배호의 노래 또한 '대중가요=경(經)'으로서, 한 시대의 희망과 위로의 '근거'였다.

배호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 역사의 밑바닥에, 오래 전부터 우두커니 버티고 서 있었던, 세기말적 데카당스(퇴폐주의), 니힐리즘(허무주의)을 만난다. 좀 다르게 이야기 하면, 우리 속에 있었던, 세기말 비엔나가 보여준, 쓸쓸한-고독한 정신사를 만난다. 아버지(애비)의 죽음, 터벅터벅 걸어가는 절망과 체념의 걸음걸이, 비-마지막 앞새처럼 대지에 안기려는, 그러나 '비극의 박자'를 만난다. 그 허망한 소리침-몸짓-손짓-눈빛들이 바로 우리의 르상티망(恨)과 불안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아비투스 즉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온 무의식적인 성향=관습이었다. 배호를 듣고-읽는 것은 바로 나를 보고-듣고-읽는 것, 내가 나를 위로하는 이른바 '위로의 인문학'이 되는 것이다.

## 위로+인문학 = '위로의 인문학'

누구나 한번쯤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다. 왜? 모두들 상처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에 겨운 사람도, 근심걱정 하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랴? 누구나 절망과 곤경을 경험할 수 있고, 그때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럽고 따사로운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챙겨주기를 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위로(慰勞, Consolation)란 무엇인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즐거움과 기쁨은 플러스로, 괴로움과 슬픔은 마이너스로 되길 바란다.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가? 마음-감정-심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감정으로 만들어진 상처는 외상(外傷)이 아니라 내상(內傷)이다. 내면적 상처, 즉 심리적, 정서적, 감성적 상처를 말한다. 바깥의 상처는 보이는 것으로 치유되기 쉽다. 그런데 안쪽의 상처는 보이지 않거나 섬세하여 치유되기 어렵다. 치유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을 잘 유지해 가려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은 수시로 우리 심장(心)에 칼(刃)을 들이대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칼날에 닿은 부위가 고통을 동반하지만 아픈 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견뎌야(忍)만 한다. 견딘다는 것은 '참고 지낸다'는 것이다. 참고 지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서, 인내와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가치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며 당위적,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한 마디로 인문적인 것이다.

인문학은 사람(人)의 무늬(文)를 말한다. 무늬란 '물건의 거죽에 어루어져 나타난 어떤 모양'인데, 어루어져 있다는 것은 '어려어롱한 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것'이다. 인문학이란 생물학적 삶의 기반 위에 쌓은 '지혜-문화의 무늬'이다.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사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피와 신경으로 엮는 것이다.

가장 큰 위로는 고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일이다. 고통은 그 의미를 알 때, 고통이 아니며, 실패도 좌절도 그 의미를 알 때, 그것이 아닌 것이다. "어떤 고통이든 다 '의미'가 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참고로 '의미'는 한 마디로 '뜻'인데, 그 어휘는 원래 중국 원나라의 양재(楊載, 1271-1323)가 쓴 시(敗裘詩)에서나 남송시대 주자의 「독서법(讀書法)」(『주자전서(朱子全書)』)이란 글 속에서 잠시잠시 보이던 것이었다. 이것이 근대 일본에서, 영어 'meaning' 등의 서양어를 번역할 때 채택된 것이다. 이렇게 '근대일본한어(近代日本漢語)'로 탄생한 뒤, 우리나라에는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 배호라고 적고 위로라고 읽는다!

내가 배호의 노래를 들어왔던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그의 노래를 들어왔던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만하다. 고통의 의미를, 배호 노래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다. 스스로의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배호 노래로 기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자신의 그늘과 측은함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넘어서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배호의 아픈 노래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의 소리가 아니었던가. 하여 나는, '배호라고 적고 위로라고 읽는다!'

\* 이번 호에 실린 '위로의 인문학(배호라고 적고 위로라고 읽는다)'은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2017년 봄학기 특강인 '최재목의 위로의 인문학' 강연(4월~5월)을 칼럼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최재목

- 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 일본 초쿠비대학원 석사 및 박사
- 하버드대, 도쿄대, 베이징대, 라이덴대 등에서 연구
- 한국양명학회 회장 역임
- 현재 한국일본사상학회 회장
- 저서/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노자,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외 다수
- 200여 편의 논문



## 한국과 일본문화 달라도 참 다르다

글·자료 이성낙



<sup>1</sup> 일본화가 가노 쓰네노부(狩野常信, 1686~1713)가 그린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초상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파리 그랑팔레(Grand palais)에서 호쿠사이(Hokusai) 전시회가 있었다(2014.10.~2015.01.).

‘호쿠사이’는 일본 에도(江戸) 시대의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로, 서구에서는 ‘Hokusai’\*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화가이다.

18세기 말부터 유럽에 수출된 일본 도자기가 상류층에서 큰 인기몰이를 할 무렵,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그 도자기를 쓴 포장지에 그려진 문양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호쿠사이풍’ 그림을 본 당시 화가들은 단순기법으로 그린 일본 풍경화와 인물 묘사에 감명을 받았다. 요컨대 입체적이 아닌 ‘평면성’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일본화의 ‘평면성 화법’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조선의 선비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이 1711년 통신사 단장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막부의 어용화가 가노 쓰네노부(狩野常信, 1686~1713)가 그린 초상화이다.<sup>1</sup> 이 초상화에서는 의복의 옷 주름 굽기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필선이 우리의 것과 사뭇 다르다. 즉 조선 시대 초상화의 절도 있는 윤곽선과 다르다. 또한 조태억의 흉배가 실제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초상화의 핵심인 얼굴 묘사법을 보면 더욱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조선 선비의 입술이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얼굴 전체를 흰색으로 ‘단일’하게 처리했다. 이는 일본 초상화의 전형이다. 이를 조선 초상화를 대표하는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자화상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공재는 안면을 연한 노란색으로 처리함으로써 색조의 강약에 따른 입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sup>2</sup>

일본 초상화의 이런 성격은 대상을 정밀하게 묘사하기보다 인상을 스케치하듯 그렸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 선비의 초상화를 그린 일본 화가의 특징을 요약하면 ‘흉배의 묘사’, ‘입술 색’ 그리고 ‘안면의 흰색 처리’라고 집약할 수 있다.



조태억 초상은 우리 조선 선비의 모습을 일본 화단을 대표하는 당대

최고 화가가 그린 초상화라는 점에서 주요한 미술사적 의미를 갖는다. 즉 문화 코드와 관련해 필자는 ‘자연성’과 ‘인위성’이라는 한국과 일본 문화에 존재하는 아주 다른 ‘잣대’를 본다.

\*주 : 당시 유럽인이 자신들의 표기법에 따라 일본의 이름을 ‘상’으로 알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sup>2</sup>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자화상과 조태억의 초상화. 입술 색과 안면 피부의 색이 많이 다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조선과 일본의 초상화 기법에 대한 문헌을 고찰해보면 그 차이점을 한층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초상화 제작 기법을 조명한 조선미(趙善美,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귀족은 서민과는 달리 고매한 존재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내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만하고도 품격 있는 얼굴 표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에게는 ‘히키메가기하나(引目鉤鼻, 실눈 매부리코 기법)’라는 얼굴 표현법이 구사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아랫볼이 볼록한 둥근 얼굴, 두텁고 짙은 눈썹, 가늘게 일선으로 그어진 눈, ‘<’ 자형의 코, 그리고 조그맣게 붉은 점을 찍은 입으로 이루어진 얼굴 묘사법인데...  
 ”[《왕의 얼굴-한·중·일 군주 초상화를 말하다》, (주)사회평론, 2012, 298쪽]

저자는 여기서 귀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릴 때 피사체의 진영(眞影)과 상관없이 ‘눈(目)은 이렇게, 코(鼻)는 저렇게’ 그리라는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두고 천태만상이라 하지 않는가. 도식화한 일본 초상화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창의성, 즉 예술성이 훼손된 것이다.

근래 호쿠사이의 그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다 “The Hokusai Manga(北齋漫画), Hokusai's Sketches”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우리가 말하는 만화(漫畫)를 일본어로 ‘만가(Manga)’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호쿠사이를 일본 애니메이션(Animation)의 원조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도식적으로 그린 ‘스케치’인 ‘호쿠사이 작품’의 분류는 우리가 지키고 지향해온 예술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 조선미 교수가 지적한 ‘히키메가기하나’에 따라 그린 일본 초상화<sup>3</sup>에서는 ‘볼록한 볼, 붉은 입술, 매부리코’를 볼 수 있다. 일본 제74대 왕 도바(鳥羽, 1103~1156) 초상화의 경우가 그렇다.

이 초상화의 피사체인 도바 왕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 중국으로 치면 송나라 시대(宋朝, 960년~1279년)의 인물이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초상화 문화가 활발하지 않았다. 초상화 문화는 명나라(明朝, 1368~1644)에 들어오면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바의 초상화는 그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일본 역사 인물의 초상으로서 훗날 그린 것으로 보인다. 지침을 잘 따른 본보기인 셈이다.

그러면 조선 시대 초상화는 어떻게 그렸을까. 단연코 일본의 초상화와 아주 다르다. 500년 넘게 지켜온, 그것도 한결같이 일관되게 지켜온 화법은 미술사적 의미를 뛰어넘어 조선 시대의 정신적 유산이기도



<sup>3</sup> 일본 도바 왕(鳥羽, 1103~1156)의 초상화. ‘볼록한 볼, 붉은 입술, 매부리코’를 그린 지침이 보인다.

하다. 이는 조선의 초상화 제작 기법에 “화가는 피사체를 화폭에 옮기면서 오직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그려야 한다”는 목직한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조선 왕실 승정원일기, 숙종 14년(1688)\*]. 조선 시대에 조성된 무형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얼핏 보기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 코드’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처럼 달라도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차분히 반추하다 보면, 조선의 ‘無지침 정신’이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다.



\*주 : 朝鮮王室 承政院日記(肅宗 14年 三月初 七日/1688년)에는 초상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 先儒 所謂 : 一毛一髮少或差殊 卽便是別人者 誠是不易之論

원고 내용 중 일부는 자유칼럼(2016.11.11.)에 실린 적이 있음을 밝힌다.



#### 이성낙

- 가천대 명예총장, 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 원현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 메가트렌드 시대의 문화예술

인간과 기계의 협업, 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글 이영란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과 감성을 인공지능(AI)이 완전히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AI는 미술이나 음악까지 빠르게 창작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AI가 체스·바둑을 두는 것을 넘어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인간과 음악을 함께 만드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바야흐로 예술이 기술과 만나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예술 창조가 더 이상 인간만의 독점물이 아닌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 인간과 기계가 교류하며 창작 지평 넓혀

인간과 기계가 교류하며 창의성과 감각적 경험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 것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3D(3차원) 프린팅 같은 하루가 다르게 급진전하는 첨단기술 때문이다. 많은 최고의 IT 전문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지능형 기계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쏟으면서 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그 결과 기계 스스로 연주하고 심지어는 창작도 한다. 연주나 작곡 기능이 탑재된 AI와 로봇이 전자음악 분야가 아닌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매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구글은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노 봇(piano bot) '인공지능 듀엣(AI Duet)'을 공개했다. 구글은 인공지능 '듀엣'에 인공지능경망을 활용한 기계 학습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했다. 인공지능 '듀엣'은 인간이 연주한 음악을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은 뒤 딥러닝을 사용해 연주법을 훈련해, 멜로디와 리듬 패턴을 익히고 스스로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이 먼저 멜로디를 연주하면 그에 맞춰 인공지능 '듀엣'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구글은 '듀엣' 외에도 드럼을 연주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클래식 악기 제조사인 스타인웨이앤드선스(Steinway&Sons)에서 2015년 선보인 '스피리오'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재현하는 자동 연주 피아노다. 아이패드를 이용해 피아노를 제어하는데 음과 리듬뿐만 아니라 연주 뉘앙스까지 재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 연주 피아노가 단순히 건반의 움직임만 재현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 보다 정교해졌다. 자신의 연주는 녹음, 녹화된 게 아닌 한 직접 들어볼 방법이 없었던 연주자들은 자신이 방금 전 연주한 음악을 피아노로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작곡하는 AI도 점점 발전 중이다. 지난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경기필)는 인공지능 작곡가 에밀리 하웰이 만든 곡을 연주했다. 하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C)의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이 개발한 AI 작곡 프로그램이다. 첫 앨범은 2009년 발매됐다. 하웰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박자와 구조를 자료화한 뒤 이를 조합해 작곡을 한다. 수학적 분석을 통해 각 곡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바로크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있다.

## 딥러닝 기술로 고흐작품 재현도...

미술 분야에서도 AI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구글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마젠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듀엣' 등의 개발은 그 연장선상이다. '마젠타'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음악과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클라우드 소스 방식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마젠타'는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예술가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젠타'는 인간 예술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어 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다른 많은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이 바흐나 비틀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을 만들거나 슬픈 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진화에 힘입어 예술가들은 더 이상 페인트, 스텐실,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도구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3D 프린팅, 가상현실, 인공 지능과 같은 새로운 예술적 매체는 예술가들에게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기표현의 형태를 제공한다. 예술가들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고희의 작품을 따라 그리도록 한 적도 있으며, 게다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소에서 판매된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을 맞으면서 작품 표현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역할을 두고 예술가들의 생각은 더욱 분분해지고 있다.



가상현실은 예술가들에게 가상공간에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3차원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 구글의 '틸트 브러시(Tilt Brush)'는 예술적 배경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틸트 브러시는 '페인팅의 새로운 시각'이며 예술 작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3D 프린팅이나 가상현실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도구가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유명한 예술가 또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더 자유롭게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예술가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다. 상상력을 연출하는 것은 타고난 인간 행동이다. 우리 모두는 단어, 영상 또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표현 매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창조의 가능성은 더욱 무한해진다. 이 때문에 디지털은 새로운 예술언어가 되었고 융합예술가들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딩은 '필수과목'이 되어 가고 있다.

### 스토리 콘텐츠 국내연구 본격 시작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직 협소한 유형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설계된 작업에서는 매우 뛰어나고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내지만 모든 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 인공지능이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작업이 있다. 글쓰기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 기술 연구를 본격 지원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인하대 조근식 교수팀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작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올해 대학ICT연구센터(ITRC)의 최종 과제 7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ITRC는 2000년부터 시작된 ICT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대학의 기술개발(R&D)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키워내고 산학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7곳이 추가되면서 이제 43개 대학이 대학

ICT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조근식 교수팀이 이끄는 연구진은 앞으로 4년간 매년 5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조근식 교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연구를 시작해 미디어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한 심층 기계학습 기술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영화, 게임, 드라마 등 스토리 기반 콘텐츠 창작을 AI가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ITRC 연구팀은 AI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의 콘텐츠 개발을 자동화해 콘텐츠 기획이나 창작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예술적인 결정은 결국 인간의 몫

인터넷의 시대에 예술가의 영향력은 갤러리 내에서만 물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아도 된다. 소셜 미디어와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작품들을 전 세계에 판매 할 수 있다. 이제 기술은 예술 창작을 위한 보다 접근하기 쉬운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이 자금을 지원받고 판매되고 배포되는 과정까지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예술 분야의 AI의 활용은 창작을 하든지, 또는 작품을 판매하건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일 뿐, 예술적 결정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인공지능이 언젠가 기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도 있겠지만, 왜 예술을 하는지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것만으로는 혁신적 작업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관객에게 공감을 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예술대학교 이영렬 교수(영상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술계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예술가가 요구되고 있다"며 "예술적 창의성과 인문학적 소양에다 과학기술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예술융합 차원에서 예술가와 공학자의 협업이 한층 긴요해지고 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이영란

-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 1988년 영남일보 입사
- 생활과학부, 문화부, 편집부를 거쳐 2002년 ~ 2017년 현재 서울 정치부 취재기자(국회 및 정당, 청와대)
- '이영란의 메가트렌드 읽기' 코너 수년간 영남일보 연재



# 톨스토이에게 길을 묻다

문화 레프 톨스토이의  
〈야스나야 폴라나〉  
영지를 가다

글 · 사진 박정곤

봄은 그렇게 지나갔다. 지나간 시간은 추억으로 회자된다지만 모스크바의 지난봄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했고 살아가는 이들의 가슴속 가득 흑독함만 남기고 떠났다. 기나긴 겨울을 뒤로하고 예고 없이 찾아온 푸른 하늘은 시베리아의 냉기에 익숙한 러시아인들의 두터운 외투를 서둘러 열어젖히고 생동으로 가득 차게 하는가 하더니, 오월의 한 가운데 느닷없이 불어 닥친 눈보라는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초록의 싹을 틔운 자작나무와 수양버들의 새초롬한 가지를 움츠리게 하였고, 벨벳보다 더 폭신할 듯 들판 가득 균락을 이룬 민들레의 어린 잎사귀 하나마저도 떨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시간은 역시 최상의 치료제였던가. 그토록 달갑지 않던 봄도 검푸른 모스크바 강의 씻김을 거스르지 못하고 여름 하늘에 길을 열어준다. 어느덧 길어진 낮의 기운은 저녁 아홉시를 넘겨서야 노을을 맞이하였고 가로수 아래 도로를 정비하는 미화원들은 울긋불긋 꽃모종을 심느라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맘때면 전 러시아에서 가장 빛의 향으로 가득한 곳이 있으니, 바로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영지 〈야스나야 폴라나〉이다. 우리말로

톨스토이 석상이 있는 톨라 시내 풍경



톨라 역사 전경. 소풍 온 아동들의 표정이 해맑다



Leo Tolstoy

‘밝은 대지’를 뜻하는 이곳은 푸른 초원과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생명의 태동하는 기운이 그윽하다. 지금처럼 한껏 빛을 머금은 이곳에서 레프 톨스토이가 태어난 것이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와 같이 시공의 벽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범인류적 화두를 톨스토이는 지난 세기에 남기고 역사의 뒤안으로 떠났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와 작품에 담긴 사상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귀감이 되고 때로는 교감을 이루며 오래토록 전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리나〉 뿐만 아니라, 〈부활〉, 〈인생론〉, 〈참회록〉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대가의 생애와 그의 창작 노정을 따라 거닐며 짧은 만남을 가져 보았다.



## 톨스토이의 고향, 야스나야 폴라나

모스크바를 떠나 툴라로 가는 기차는 설렘으로 가득하다. 이른 새벽의 차창 풍경이야 그늘 속에 늘어진 나무처럼 시야를 획하니 정신없이 지나치지만, 객차 내 앉아있는 여행객들의 표정 속에는 저마다의 삶이 담겨 있다. 크고 작은 보따리를 등쳐 메고 손자, 손녀의 고사리 손을 잡고 푸근한 맘으로 앉아있는 노인들, 수학여행이라도 떠나는 듯 삼삼오오 무리지어 앉아 시골벽적 유쾌한 수다를 풀어놓는 학생들, 그야말로 흥겨움을 가득 싣고 열차는 달린다. 눈치 없이 남동풍을 타고 몰려온 먹구름도 호기심 가득 찬 아이들의 기세에 몰려 얼른 자리를 비워주려는 듯, 짧은 그림자 뒤로 다시 밝은 해가 얼굴을 내민다.

모스크바 쿠르스크 역을 떠나 두 시간 남짓 달렸을까, 남쪽을 향해 달리던 기차는 이내 툴라에 도착해 기적을 울리며 숨을 고른다. 1차,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당시 툴라 또한 전쟁의 상흔을 피해가지는 못하였을 터. 역사 안팎으로 전쟁 당시를 상기시키는 조형물과 전물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이 즐비해 있다. 군용장갑열차가 세워진 역의 한켠에는 무언가 모르게 장엄함이 스며있었지만 한가한 역사의 풍경은 도회지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간이매점에서 진하게 우려낸 러시아 흑차(black tea-우리의 홍차와 유사)를 여유롭게 한잔 마시고 필자는 개별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짧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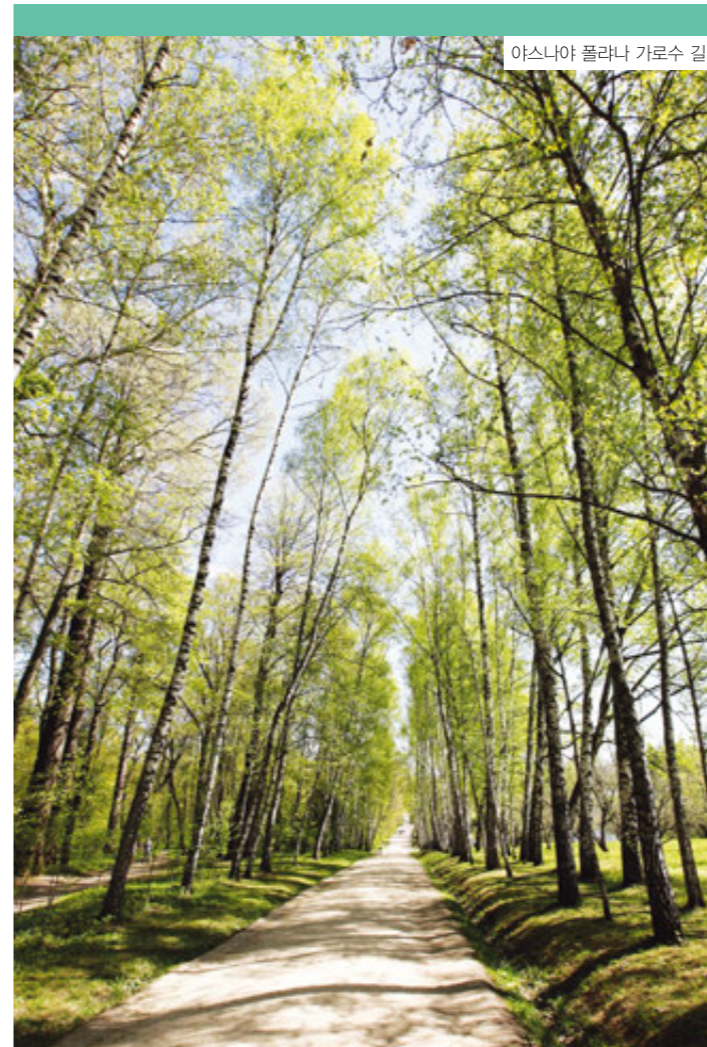
흥정을 마친 후 재빨리 차에 몸을 싣고 야스나야 폴라나로 향하였다. 시내 한복판 레닌 거리에 우뚝 세워진 톨스토이의 동상은 한 눈에 봐도 이곳이 그의 고향임을 알게 해 주었고, 동상 아래 새겨진 그의 명문 “나의 글은 나의 전부이다”라는 글귀는 오늘날 가볍게 글이 쓰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자아냈다.

도심을 빠져나가니 금세 신선한 공기가 얼굴에 와 닿는다. 거리에 이따금 보이는 오래된 붉은 벽돌의 건물들은 톨스토이와 대면하려 가는 필자를 더욱 기대감에 차게 만들었다. 19세기 중후반 러시아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이자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톨스토이 선생이 거닐던 곳에 와있다니 그 느낌이 묘하면서도 경이로움마저 자아냈다.

차가 내려준 곳은 야스나야 폴라나 영지의 입구였다. 넓은 울타리 너머로 영지 안의 호수가 시원하게 들여다보인다. 그런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매표소를 비롯하여 각각의 건물로 이동하는 길목에도 한글로 된 표지가 어디에나 있다. 그만큼 톨스토이의 문학을 사랑하는 한국의 애호가들이 많이 다녀간 흔적이라 생각하며 생각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톨스토이의 집



야스나야 폴라나 가로수 길



야스나야 폴라나 영지 입구

짧게나마 작가의 삶에 대해 전하자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 부모님의 영지인 툴라 주의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태어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은 어머니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땅으로써, 러시아 귀족가문인 볼콘스키 집안의 영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톨스토이의 외할아버지인 니콜라이 볼콘스키 공작의 영지였던 것이다. 원래 이곳은 툴라의 크라피벤스키 지방이라 불리었는데, 많은 이들이 야스나야 폴라나를 찾아오다 보니 오늘날 자연스럽게 이처럼 명명된 것이다.

4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는 두 살이 채 되기 전 어머니를 여의고 아홉 살 때 아버지마저 여의고 만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영지에서서의 삶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쉽지 않다 판단되었을까,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라나를 떠나 카잔의 숙모에게 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 톨스토이의 사상에 동양적인 면이 물씬 풍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카잔에 머무르던 시기에 대학에서 터키어와 아라비아어를 익히고,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공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연으로 톨스토이는 향후에도 동양에 관한 책들을 가까이 하였다 한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라나 영지를 평생 곁에 두었지만, 한때 그는 이곳을 떠나 도회지에서 생활하고자 종종 집을 비우곤 하였다. 젊은 시절의 호기란 작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듯, 친구들과 도박과 음주가무를 즐기며 방탕한 나날을 보내던 때도 있었다. 청년의 톨스토이는 조용한 시골 생활에 무료함을 느꼈는지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를 갈망하였다. 지금의 모스크바 하모브니키 영지도 어쩌면 그런 그의 마음을 달래주던 피안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청년 시절, 그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형 미하일과 함께 군 생활을 시작한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포병장교로 근무하던 그는 지방 각지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의 낯선 문화와 마주하였다. <코카서스의 포로들>과 같은 소설에서도 그렇듯, 다문화적인 코카서스 지방이 그의 문학작품에 종종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그가 문학적 창작적 꽃을 피울 1860년대 당시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러시아는 농노제의 폐지로 새로운 개혁의 순간을 맞이하였고 근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에도 농노의 해방령은 당사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져다주었는데,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과 신흥 자본 세력이 등장하면서 농노들은 또다시 땅을 빌어 농사를 지어야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다양한 그의 작품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었으며, 실제로 톨스토이의 삶에서 농민에 대한 애정과 계몽의지는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톨스토이의 작품을 조심스레 열다보면 인간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는 것이다. 인간사의 일상다반사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치열한 고뇌의식, 현실적 삶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자괴감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인간심리의 다양한 면들을 날카롭게 조명하여 작품의 중심 슈제트로 세우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 특히 동물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부당한 행위와 비열함, 그리고 버려진 이들에 대한 연민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가령, 그의 영지에는 유난히 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어릴 적부터 봐오던 마부들과 마구간의 말들이 그에게는 커다란 창작적 영감을 불러일으켰지 않았을까 한다. 이처럼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작가는 결코 가벼이 웃고 지날 수 없는 인간 심리의 문제와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반성과 성찰을 경험하게 한다.



영지 내 사과밭

별관, 톨스토이의 저택을 중심으로 넓은 과수원이 펼쳐져 있다. 톨스토이의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40헥타르가 넘는 사과밭에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 덕분에 시원한 전망과 경치 또한 이곳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당대 톨스토이는 서른 마리의 말을 이곳 영지에서 길렀다 하는데, 볼콘스키의 저택 앞 마구간에는 아직까지도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한 별 아래 마차 산책이라도 나온 듯 거만히 뒷짐을 지고 마구간 앞마당에서 노니는 거위들은 보는 사람마저 한가롭게 만들었으며,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한 영지의 풍광은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톨스토이가 펜을 놓고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이처럼 야스나야 폴라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금세 19세기의 어느 한곳으로 인도한다.

볼콘스키의 저택을 제외하면 이곳 건물들은 사실 저택이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목조로 지어진 크지 않은 두 채의 집과 농민과 마부의 오두막이 전부이니 말이다. 필자는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리나>를 집필했던 그의 집으로 들어가 보았다. 칠이 바란 나무 대문 너머 책 냄새가 가득하다. 독서를 즐겼던 톨스토이는 2층에 별도의 서재를 두었는데 프랑스어, 체코어, 라틴어, 영어, 고대 러시아어 등 장장 30개국의 언어로 쓰인 2만 3천권에 달하는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실내에는 톨스토이와 그의 가족들이 쓰던 물건들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이반 크람스코이와 일리아 레핀이 그려준 톨스토이 가족의 초상화들이 많은 이들의 눈을 끌었다. 아내 소피아가 막내딸 알렉산드라를 안고 있는 초상화는 그 가운데서도 명작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박물관에 사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보안상 실내 사진 촬영은 금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집필 장소에서 그의 숨결이 담긴 필기구와 책상, 찻잔과 두터운 외투를 대면한 방문객들은 좀 더 오래 눈과 가슴에 담아두고자 애를 썼으며, 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곳까지 걸어 다녔다는 당시 그의 모습을 어슴푸레 그려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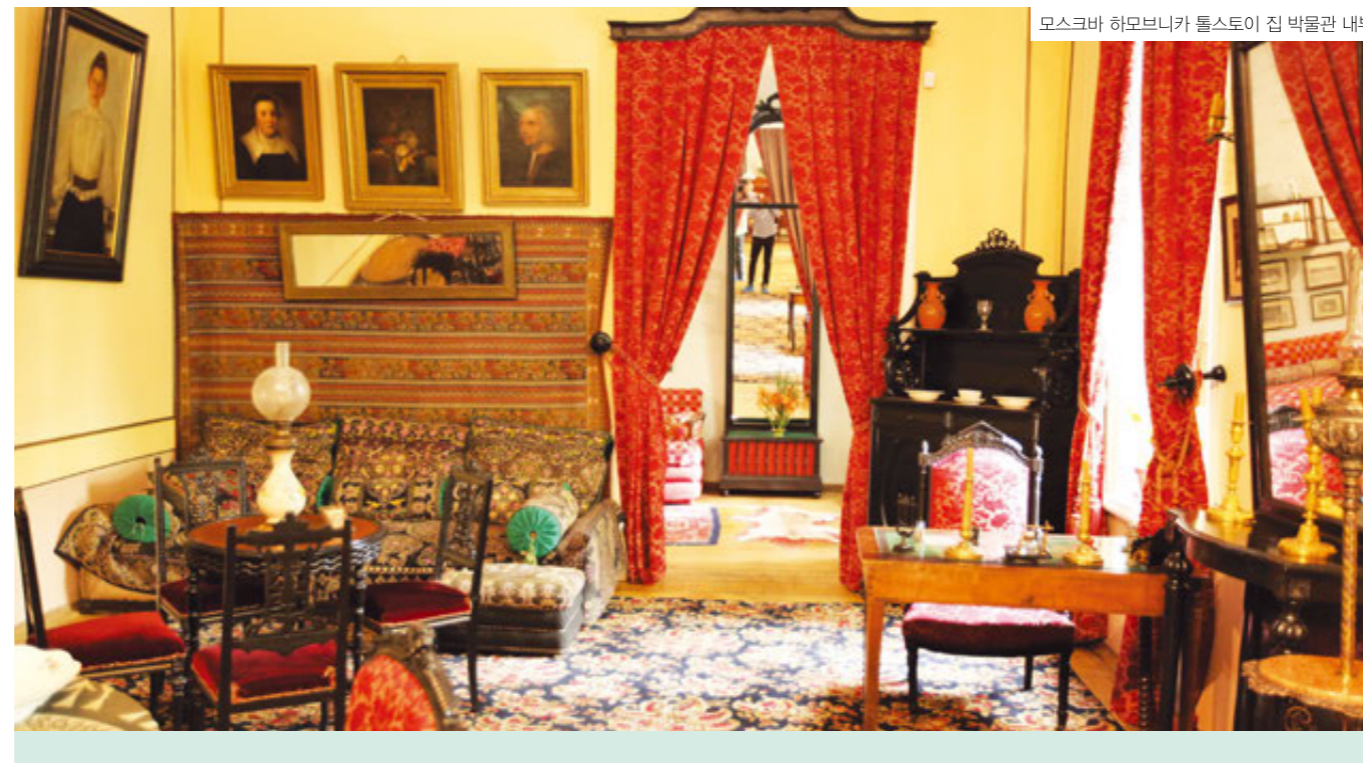
*Leo Tolstoy*

## 자연에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다

잘 알려진 바, 희대의 걸작 <전쟁과 평화>(1865년)는 톨스토이가 1805년과 1812년에 발발한 대(對)나폴레옹 전쟁과 1825년 제정 러시아를 뒤집어놓은 데카브리스트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장편 서사 소설인데, 이 작품은 이곳 야스나야 폴라나의 작은 공간, 즉 저택의 1층 음식 저장소를 개조해 만든 조그만 집필실에서 탄생하였다.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만들어진 데에는 분명 본인의 가족사도 한 몫 하였으며, 주변의 지인들과 당대 사건들도 줄거리의 토대를 세우는데 많은 부분에서 일조하였다. 실제로, 영지의 주인이자 외할아버지인 니콜라이 볼콘스키 공작이 <전쟁과 평화>의 고뇌에 찬 주인공 안드레이 볼콘스키가 되었으니 말이다.

야스나야 폴라나는 이런 그의 문학관을 대변하는 전시실과도 같다. 영지의 언덕 위에는 볼콘스키의 저택과 쿠즈민스키



모스크바 하모브니카 톨스토이 집 박물관 내부



## 톨스토이가 남긴 나눔의 행복

드넓은 영지의 뒤뜰로 가다보니 오솔길 모퉁이에 우두커니 표지판이 서 있었다. 바로 톨스토이의 무덤으로 안내하는 글귀였다. 키 큰 채식주의자 톨스토이는 시력이 좋지 않아 늘 허리를 구부려 무언가를 살피고 드러다 보았다 한다. 젊은 시절의 방탕도 한때였으니, 57세부터 채식만 고집하고 담배도 끊고 오로지 종교와 교육활동에 귀의해 주변 이들을 도우며 살아온 그였다. 심지어 1881년 이후에 저작된 작품들의 판권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여 아내 소피아와 갈등을 겪기마저 했는데, 그랬던 작가의 파란만장했던 일생도 그 시작과 끝을 이곳 야스나야 폴라나와 함께 했던 것이다.

한적한 숲길을 따라 그의 묘지를 찾아가 보았다. 양 갈래 머리를 곱게 땀은 여인의 미소처럼 가지런히 심긴 연록의 가로수는 필자에게 길을 인도하였다. 의아하게도, 표지를 지나도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음에도 무덤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무덤을 상징하는 동그란 봉분 혹은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비석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한 생각에 좀 더 걷다 보니 골짜기 아래로 이어지는 한 모퉁이에 무언가 낯선 형체가 눈에 들어 왔다.

물끄러미 덩불을 바라본다. 굳이 할 말도 없었거니와 상상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풍광이 입속을 검은 잎으로 가득 채워버린 듯했다. 영지 끝자락에 놓인 그의 무덤에는 비석도, 봉분도 없다. 그저 낮은 관목 나무들로 사람 한명 크기의 네모난 형태의 덩불을 만들어놓은 것이 전부이다. 이곳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한 이라면 여기가 톨스토이의 무덤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 유럽의 명망 있는 시인들과 극작가, 그리고 소설가들은 대개 커다란 무덤 혹은 비석으로 장식된 안식처를 가진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가령, <감찰관>, <외투>로 유명한 니콜라이 고골의 무덤엔 멋진 흉상이 세워져있으며, 연출가 스타니스라프스키의 무덤에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문양인 갈매기가 새겨진 커다란 기념석이 세워져있다. 페테



톨스토이 선생 무덤

르부르크의 도스토예프스키와 차이코프스키의 무덤은 또 어떤가? 이들 역시 조각 작품을 연상케 하는 동상과 기념비를 가진다. 그런데 19세기 최고의 작가 반열에 놓인 톨스토이 선생의 그것에는 비명하나 없이 각진 초록 덩불이 전부이다. 그저 조경의 일부이거나 하고 돌아서버리기조차 일수이다. 그만큼 그의 무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영지 한 모퉁이 한적한 곳에 이런 무덤이 마련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생전 톨스토이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빈민구제와 농민교육을 위해 기증했는데 아마도 그런 그의 뜻에 따라 무덤 또한 소박하게 차려졌을 것이다. 그의 유언장에도 사제를 불러 제 의식을 하거나 망가를 부르지 말고 그저 조용하고 최대한 저렴하게 장례를 치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니 말이다. 그가 사망한 당시 나이는 82세,

1910년 11월에 유명을 달리한 톨스토이의 장례에는 5천이 넘는 운구 행렬이 이어졌다 한다.

그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다시 발길을 돌린다. 무덤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이런 저런 생각에 여느 때와 달리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다. 현실의 삶과 추구하는 가치관 사이의 괴리에서 빚어진 고통을 끝내 참지 못해 집을 뛰쳐나가 라잔 지방 아스타포보의 낯선 역참지기의 방에서 생을 마감한 톨스토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면전에 두고 만년의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

문득 그가 남긴 저서 가운데 행복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이란 작품을 떠올려 본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영지 표지판

지금이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곁에 있는 그에게 선을(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톨스토이는 책을 통해 전한다. 그의 글귀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옆을 함께하는 그 누군가와 행복을 나누어보면 어떨까?

박정근

- 고려기 문학대학교 한러문화연구원 원장
- 고려기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여행> 러시아 큐레이터



Hemingway &amp; Cuba

# 헤밍웨이와 쿠바

글·사진 신영



Hemingway &amp; Cuba

## The Old Man and The Sea

### 헤밍웨이... 쿠바...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비슷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에 남은 책 제목과 줄거리 그리고 때로는 여름 방학 숙제로 남은 독후감 거리들.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해 엄마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어릴 적 감동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나를 나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좋아했던 책 중에서는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그리고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이다.

쿠바... 미지의 세계처럼 설렘으로 있었던 곳. 한번쯤은 다녀오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분방하던 대문호 헤밍웨이가 20여 년을 생활하면서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며 만났던 그 바다를 보고 싶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중부 문학기행>을 하며 시카고 교외의 오크 파크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헤밍웨이의 생가를 방문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헤밍웨이가 만났던 그 바다를 보러 쿠바로 향했다. 1961년 국교 단절 이후 54년 만에 이루어진 쿠바와 미국과의 국교가 재개(2015년 7월 20일)된지 2년이 되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의사였던 아버지와 성악가였던 어머니의 사이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전형적인 부유층 백인가정에서 풍족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헌신적이고 예술가적 기질이 풍부했던 어머니로부터 문학과 음악을 배웠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던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해서 종종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자유분방했던 성격의 헤밍웨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입학을 포기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아버지와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 코히마르(Cojimar)... 노인과 바다...

그는 어쩌면 쿠바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급하지 않은 여유로운 성격과 너무도 잘 어울렸을 법한 모습이 오버랩되어 스쳐 지나간다. 그는 너무도 자유분방한 성격에 첫 번째 부인 해들리와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연인 관계였던 파리 <보그>지 편집부장이었던 폴린 파이퍼와 재혼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폴린과 함께 파리를 떠나 미국의 휴양도시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로 이주했다.





## La Terraza

그리고 그는 존경하던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우울증을 겪다 권총자살을 한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헤밍웨이의 마음 속 깊은 바다는 어떤 색깔이고 빛깔일까. 소설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된 어촌마을 코히마르(Cojimar)는 여느 어촌마을과 다를 바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소박한 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어부들의 소소한 일상을 배경으로 술잔을 마주하며 서로 나누던 이야기들이 소설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작은 마을에서 얼마를 걸으면 너른 수평선의 바다가 보이고 낚싯대를 들고 나가 고기를 낚으며 익숙해진 기다림 속에 여유를 배웠을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떠올려본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내면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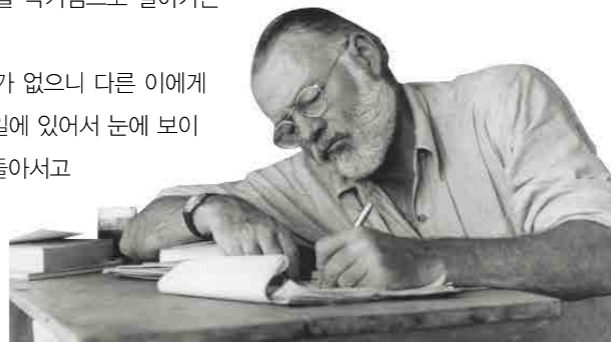
그는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알아 넉넉히 시간을 늘려서 즐겼던 주인공이다. 참으로 자유분방한 타고난 예술가다. 그가 낚시 광이었던 것처럼 술고래이기도 하다. 자신을 스스로가 '쿠바의 이방인'이라고 자처할 만큼 그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나라 쿠바를 사랑했다. 낚시 광이었던 헤밍웨이는 1928년에 처음 낚시 여행으로 쿠바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1960년 미국과 쿠바의 관계악화로 추방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쿠바에서 지냈던 것이다.

그러니 그의 제2의 고향이 쿠바인 셈이다. 그의 삶의 구석마다 쿠바의 열정이 스며들었다. 술을 즐겨 마시는 내게 쿠바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된 것은 헤밍웨이가 즐겨 마셨다는 '모히또'라는 칵테일이었다. 그는 술과 낚시 그리고 낚시와 술 어느 것을 더 좋아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또한, 헤밍웨이가 즐겨 찾았던 코히마르 레스토랑의 이름은 '라 테라사(La Terraza)'이다. 이곳은 《노인과 바다》에도 실제로 등장했으며, 소설 속 노인의 유일한 친구인 소년 마놀린이 산티아고를 위해 커피를 받아왔던 곳이라고 한다. 쿠바, 코히마르에서의 그의 생활은 어쩌면 그가 가장 갈증 나는 시기였으며, 그 갈증을 풀기 위한 안식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 하드 보일드... 헤밍웨이...

또한, 이번 쿠바 여행 중에 헤밍웨이의 생가를 방문하며 그의 성격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생가 구석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 내부의 도서들과 벽에 걸린 박제들 그리고 예쁘게 꾸며진 정원을 돌아보며 그를 느낄 수 있었다. 정원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수영장이 나오는데 헤밍웨이는 이곳에서 자유분방한 성격만큼이나 웃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수영을 즐겼다고 한다. 그의 거침없는 자유로운 영혼에서 《노인과 바다》와 같은 영원불멸의 명작이 나올 수 있었으리라. 헛수고밖에 없는 덧없는 인생자체를 극기심으로 살아가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며 지혜를 배우게 한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 문명 속에 여유란 찾기 어려운 일이다. 나 자신이 여유가 없으니 다른 이에게 배려나 기다림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현대인들에게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생각만큼의 성과가 없다면 기다리지도 못할뿐더러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마는 실정이 아니던가.



Hemingway



Mojito

그렇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의 어부처럼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누가 85일 째 되는 그 다음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러나 85일 째 되는 날, 큰 것이 걸렸다. 그 노인의 기다림의 곁에는 소년이 있었다.

헤밍웨이의 작품 중 1940년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미국 청년 로버트 조단을 주인공으로 한 그의 최대 장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를 발표, 《무기여 잘 있거라》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발표한 《강을 건너 숲 속으로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1950)는 예전의 소설의 재판(再版)이라 해서 좋지 못한 평을 얻었지만, 다음 작품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1952)는 대어(大魚)를 낚으려고 분투하는 늙은 어부의 불굴의 정신과 고상한 모습을 간결하고 힘찬 문체로 묘사한 단편인데, 이 작품으로 1953년 풀리처 상을 받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 헤밍웨이 삶을 간직한 박물관, 핑카 비히아

헤밍웨이 루트의 또 하나는 '핑카 비히아(Finca Vigia)'이다. 이곳은 쿠바 아바나 남동쪽 산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San Francisco de Paula)에 위치한 헤밍웨이의 저택이다. 그는 초기에 주로 암보스 문도스 호텔에서 머무르다 쿠바의 매력에 빠져 그의 세 번째 부인 마사와 함께 아예 집을 구해 정착했다. '핑카 비히아'

라는 이름은 '망루 농장'이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이 저택에 딸린 4층 높이의 망루에 오르면 아바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멀리 헤밍웨이가 날마다 낚시를 떠났던 바다도 보인다. 원래 본채의 실내를 개방했었는데 도난사고가 많아 요즘에는 아예 내부에 입장할 수 없게 되었다. 넓은 창을 통해서만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침실과 책상, 오래된 서적들이 빼곡한 책장, 다양한 술병, 옷가지 등 헤밍웨이가 살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존해 놓았다.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사냥을 좋아했던 그는 집 안 곳곳에 직접 사냥한 물소, 표범, 사슴 등을 박제하여 장식했다. 본채에서 정원을 따라 조금 내려오면 실외 수영장이다. 깊이도 상당하다. 수영장 바로 옆에는 그가 바다로 나가 낚시를 즐길 때 이용했던 낚싯배 '필라르(Pilar)'호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겨져 있다. 야외 정원에는 헤밍웨이와 함께했던 4마리의 반려견 무덤이 간이 비석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Finca Vigia



신영  
- 재미 시인 · 칼럼니스트



# 시인의 窓

윤동주를 그리며

시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시인에 따라 깊은 절간의 반듯한 창이 되기도 하고, 광포한 파도를 담은 선창이 되기도 하고, 인간사 부조리와 슬픔을 담은 버려진 장롱의 부서진 문이 되기도 한다. 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절절해 하는 어떤 이의 뺨뚫린 마음의 창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시인의 초상'(영화 '동주'의 영어 제목)은 시와 접착되어 있다.



이준익 감독 作品 / 강하늘 박정민 권민우 최용진 김성식 최희선 신유주 2016.02.17

글 · 사진 김중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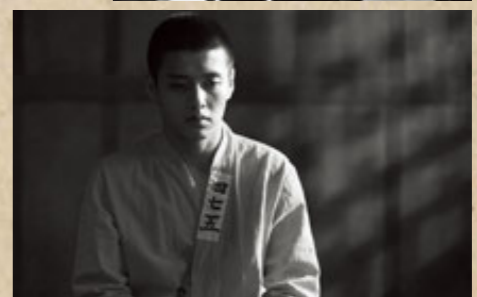
[서시(序詩), 1941, 윤동주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에 수록]

이 시를 쓴 시인의 창문은 어떤 문이고, 그 너머에는 어떤 마음의 그림들이 있었을까. 시인 윤동주 (1917~1945). 그가 애태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어떤 색깔과 의미였을까?

한국영화에서 시나 시인을 다룬 영화는 많지 않다. 이창동 감독의 '시'가 고작이다. 시인의 아픔과 초상을 다룬 영화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외국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네루다를 등장시켜 시의 의미를 그린 '일 포스티노'(1994)와 같은 영화도 있고, 최근에는 짐 자무쉬 감독의 '패터슨'(2016)이 시인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기도 했다.

'패터슨'은 미국 뉴저지 주의 작은 도시다. 미국 작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가 펴낸 시집 '패터슨'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주인공 패터슨은 버스 운전기사이면서 시인이다. 출근하고, 도시락을 먹고, 산책하고, 바에서 맥주를 한잔 마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그는 시를 쓴다.

'패터슨'은 짐 자무쉬 영화가 대부분 그렇듯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단순하지만 느리거나 지나치게 사색적이지 않으며 한 남자의 일상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동참하게 만드는 리얼함이 있다고 평했다. 영화의 형식이 윤율과 변주라는 시의 형태와도 닮아 있다.





### 시가 등장하는 영화도 많다.

T. S. 엘리엇의 시가 나오는 영화만 해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1979)을 비롯해 '마지막 4중주'(2012), '필로미나의 기적'(2013) 등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모두 감독과 각본가에게 시가 영감을 준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2016)는 반가운 영화가 아닐 수 없다. 5억원의 저예산 영화로 흔치 않게 흑백영화로 만들어 형식적인 진정성도 빛을 발했다.

'동주'는 1945년 스물아홉 짝은 생을 형무소에서 마감한 운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슬픈 청춘의 시간을 그리고 있다.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기. 한 집에서 태어난 사촌지간인 동주(강하늘)와 몽규(박정민). 내성적인 동주와 달리 몽규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청년이다. 시만 쓰는 동주와 달리 몽규는 '술가락'이란 신문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런 몽규를 보면서 동주는 묘한 열등감을 느낀다. 독립의 열망과 함께 민족의 미래가 어두워지던 그 시절. 둘은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일본에서도 몽규는 더욱 독립 운동에 매진하고, 동주는 시대를 아파하면서도 시를 놓지 못하고, 둘의 갈등은 점점 깊어간다. 동주와 몽규는 1945년 같은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단 한 달 사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준익 감독은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참회록', '새로운 길' 등 아름다운 시를 남긴 운동주의 곁에 독립 운동가였던 송몽규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드라마적인 상상력을 덧붙여 두 사람의 짧은 삶을 재현해냈다.

동주의 감정 고비고비 마다 그가 쓴 시를 등장시켜 풍부한 서정성을 더한다. 특히 배우 강하늘의 시 낭송이 동주의 마음을 관객들에게 잘 이해시킨다. 마지막 일제 경찰을 향한 동주와 몽규의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영화적으로 '동주'는 잘 만들었고, 감독의 연출 의도도 명쾌하게 전달된다. 배우들의 호연도 더해 기쁨기가 찰찰 흐르는 최근 한국영화에 비하면 소박한 디자인의 작은 시집처럼 깔끔하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운동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늘어 사회적 환기를 겨냥한 감독의 의도도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려고 했던 운동주라는 '시인의 초상'이 제대로 그려졌을까. 운동주가 그렇게 부여 잡고 싶었던 시심이 그대로 전달됐을까? 이 점에서 의문점이 남는다.

이준익 감독은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강렬한 화살을 쓰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 후반부의 일제에 대한 분노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절망, 그리고 무력감에서 나온 눈물 등이 바로 감독이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도는 '몽규'에게 맞지 '동주'의 것은 아니다. 몽규는 18살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수재로 중국 산둥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1943년 '재교토 조선인학생민족주의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45년 후쿠오카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몽규가 갈등 없이 한 길을 고수한 인물이라면 동주는 그렇지 않다. 늘 성찰하는 복잡다단한 성격이고, 그의 목표 또한 훨씬 고양된 것이었다. 그는 늘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몽규처럼 외압에 대한 저항이 아닌 자신과의 투쟁으로 슬픔을 승화시켰다.

감독은 시인 운동주를 항일투사로 만들어버렸다. 자신의 입맛에 맞춰 운동주의 시도 주크박스 뮤지컬 처럼 나열시켜, 운동주의 시가 모두 항일정신에 맞춰 쓰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영화만 본다면 동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친구와 갈등하다 결국 그에게 흡수된 캐릭터가 되고 만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을 규정하는 것은 늘 조심스러운 일이다. '동주'도 '영화 동주는 시인 운동주의 삶을 토대로 만든 순수 창작물이며, 일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 시는 시대를 뛰어넘는다.

영화든 TV 드라마든 모두 허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역사극도 완벽한 사실의 재현은 없다. 사료도 미비할 뿐 아니라, 시청자와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허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사실(Fact)과 허구(Fiction)가 조합된 '팩션'(Faction)이란 장르까지 만들어졌다. 팩션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반드시 고증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해석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말이 모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물을 그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영화 '동주'는 전체의 30%를 극화했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립되었다면,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운동주 '서시'의 이미지다. '서시'는 극도의 절제와 자기성찰이 녹아든 참으로 아름다운 시다. 문학적 해석은 고사하고 영화 속 감독의 해석에 따르면 운동주의 하늘은 민족의 광복이요, 바람은 민족의 현실이며, 별은 돌아가신 투사들이고, 시는 이런 것들을 표현한 종이 한 장일 뿐이다. 운동주의 아름다운 시어가 입시생들이 외우는 시험지 속 제시어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감독이 그린 운동주의 창문은 독립 열망의 문, 하나뿐인 썸이다.


**“시는 이미지이다. 아름다운 시는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그려진다.**

**시인은 시대를 관통하지만, 시는 시대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영화 '동주'는 반갑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이다.

**김중기**

- 1990~2009 매일신문사 문화부 차장
- 2007~2009 대구MBC '힐링시네마' 패널
- 2009~2014 대구문화재단 문화기획부 팀장
- 문화공간 필름통 대표
-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국장





# 클래식 음악가의 삶

글 · 자료 권순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음악가들은 과연 어떻게 삶을 영위해나갔을까요? 음악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일화들이 많지만, 음악 외적으로 어떤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클래식 음악가의 삶'이라는 주제로 위대한 음악가들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독자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대별 대표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바로크 시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음악가라는 직업은 궁정이나 귀족에게 후원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바흐와 헨델이 대표적인 바로크 작곡가입니다.



바흐의 가족음악회

## 착실한 음악가 바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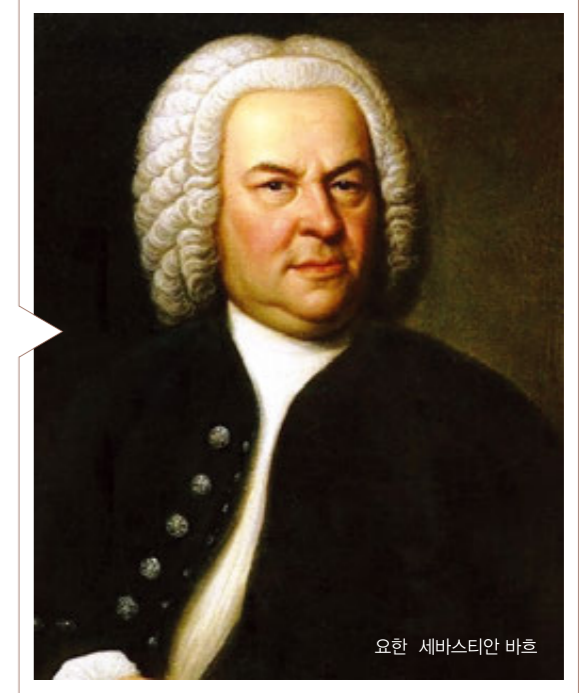
바흐는 어린 시절 음악을 시작해서 음악가의 길을 걸어온 착실한 음악가였으며 음악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첫 부인이 병으로 죽고 난 뒤 맞아들인 두 번째 부인인 안나 막달레나는 소프라노 가수이기도 했지요. 궁정음악가로 나름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한 바흐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음악회를 열기도 했고, 1000곡이 넘는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음악가로서 끊임없이 작곡활동과 연주활동에 전념하며 음악 속에서 착실히 살아간 것이지요.

하지만, 스무 명에 이르는 자식들을 키우기엔 음악가로서의 소득이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봉급을 담당하는 상관에게 '내가 자녀가 몇 명이고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바흐는 수많은 가족을 부양했던 덕에 만성적인 가계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하니, 요즘이나 그 때나 가장은 고달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곡을 작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다양한 작품으로 소득을 늘려나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카이저링크 백작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카이저링크 백작은 그 곡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들었고(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면서 졸립다는 분들은 그 곡의 작곡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랍니다.^^) 그로 인해 두둑한 작곡료를 받아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 음악가와 사업가를 병행한 헨델

바로크 시대의 또 다른 대표작곡가인 헨델은 귀족으로 분류되던 궁정의 외과의사인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음악 외적인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또한 헨델이 전업 음악가가 되겠다고 할 때 그의 아버지는 "음악하면 굶어죽기 딱 좋대! 절대 하지마래!"라고 했지만, 헨델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음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고는 음악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게오르크 선제후의 궁정악장으로 지내다가 영국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게오르크 선제후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은 채 영국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헨델은 음악가는 물론 극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도 활동을 병행하며 런던의 유명인사로 성공했고, 상류사회에 진출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또한 여왕의 음악가 자리까지 꿰차며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여왕이 죽고 난 뒤 왕위계승 서열에 따라 다음 왕으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전 직장의 사장님(?)이었던 게오르크 선제후였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왕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런던 외의 도시로



활동 무대를 옮겼지만, 헨델은 특유의 사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소원해졌던 전 직장상사이자 영국의 국왕을 상대로 대담한 일을 펼칩니다. 왕이 템즈강에서 뱃놀이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곤, 커다란 배를 빌리고 50여 명의 음악가를 태워서 왕이 탄 배 근처를 맴돌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당시에는 길거리나 강가에서 음악을 듣기 힘든 시대였기에 런던 시민들은 강가로 뛰쳐나와 음악을 들으며 환호했고, 이러한 획기적인 연출은 왕의 마음을 녹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왕의 위신을 세워주는 멋진 쇼이기도 했으니까요.

헨델은 그 일을 계기로 다시 게오르크 선제후(조지1세)와 좋은 관계로 영국왕실 음악가로 승승장구하며, 게오르크 선제후의 아들인 조지2세까지 영국왕실 음악가의 위치를 지킵니다.

바흐와 같은 세대의 음악가였지만, 음악가라기보다는 흥행사이자 사업가 기질이 강했던 헨델... 게다가 그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며 자유로운 사생활을 즐겼다고 하니 바흐와 그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참으로 대조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고전시대로 넘어가볼까요?

이 시대 역시 바로크 시대에 비해서 음악가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시기였지만, 천재 모차르트의 프리선언, 악성 베토벤의 등장으로 음악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 소득 상위 4% 모차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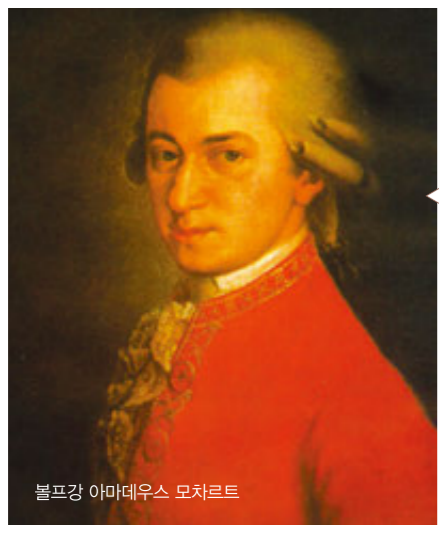
어린 시절부터 천재음악가로 대접받으며 수없이 많은 무대에서 귀족이나 왕, 심지어 교황 앞에서도 음악을 연주하고 그들을 감동시킨 모차르트는 그러한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높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궁정악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는 대담하게 '나는 후원자 따윈 필요 없다'라며 프리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무척이나 성공적이었기에 그의 공연은 항상 성황이었고, 그의 실제 소득도 빈에서 상위 4% 안에 드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차르트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의견이 많을까요?(실제로도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여기 저기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많이 벌었지만, 더 많이 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모차르트는 집에 당구대는 물론 고급 파이프담배, 여행 등 사치하며 살고 있는 것에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속 요리사까지 두고 살았다고 하니 많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커녕 빚을 지며 삶을 유지했던 것이지요...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엔 덜했지만, 그의 삶을 매니지먼트 해주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론 더더욱 관리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만 4년 뒤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맙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레오폴트 모차르트(모차르트 아버지)



베토벤의 가계부

### 가계부 쓰는 남자 베토벤

귀족한테도 굶지 않던 당당한 남자, 베토벤. 그가 꼼꼼하게 가계부까지 쓰며 많은 재산을 모으며 살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이든과의 커피 값...'

베토벤이 쓴 가계부 일부입니다. 그가 얼마나 꼼꼼하게 돈의 사용처를 기록했는지 가계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궁정의 테너 가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본인이 음악가였고 음악가의 삶이 성공여부에 따라 얼마나 극과 극으로 나뉘는지 알았기에, 베토벤을 모차르트처럼 키우기 위해서 무리한 연습을 시키곤 어린 나이에 데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모차르트 같은 선천적인 천재는 아니었기에 첫 무대를 망쳐버리고 말지요... 하지만 노력으로 푹푹 뭉친 베토벤은 훌륭한 음악가의 반열에 오르고 그에 걸맞은 수입을 올리는 물론 꼼꼼한 가계관리로 충분한 재산을 모으고 살아갑니다.

영화 '불멸의 연인'을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고관대작들에게도 저저세로 굶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는지 잘 묘사되어있지요. 한 세대 전이었

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태도로 귀족을 대한 베토벤은 귀족들로 하여금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합니다.

"괴팍하고 못생긴 음악가 주제에 그의 언행은 너무 건방지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곤 그의 의도대로 흔든다. 화가 나지만 분명히 그가 위대한 인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면면을 볼 때, 베토벤 이전과 이후로 나뉘서 '음악가'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생각해볼직 합니다. 이전 후원을 받아야 살 수 있던 음악가들의 '을'의 입장을 베토벤부터 제대로 탈피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 정도로 베토벤의 장례식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거의 국가 행사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 미사가 치러지는 교회에는 초청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주변으로 무려 3만 명이 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몰려들었으니까요... 모차르트의 초라한 죽음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이지요.

음악사에서도 베토벤은 고전 음악의 완성자이자 낭만 음악 시대를 연 장본인으로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지요.

베토벤의 장례식







## 낭만시대의 슈퍼스타 리스트

어쨌든 이 시기에 스타 음악가들은 엄청난 티켓파워를 바탕으로 많은 음악회를 성공시키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며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리스트와 사라사테와 같은 최고 기교를 가진 연주자 출신 음악가들은 전 유럽을 무대로 엄청난 연주력을 선보이며 현재의 아이돌스타와 같은 인기를 얻습니다. 특히 잘생긴 외모와 다양한 스캔들로 전 유럽의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리스트는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의 손을 잡고면서 한 말이 정말 압권입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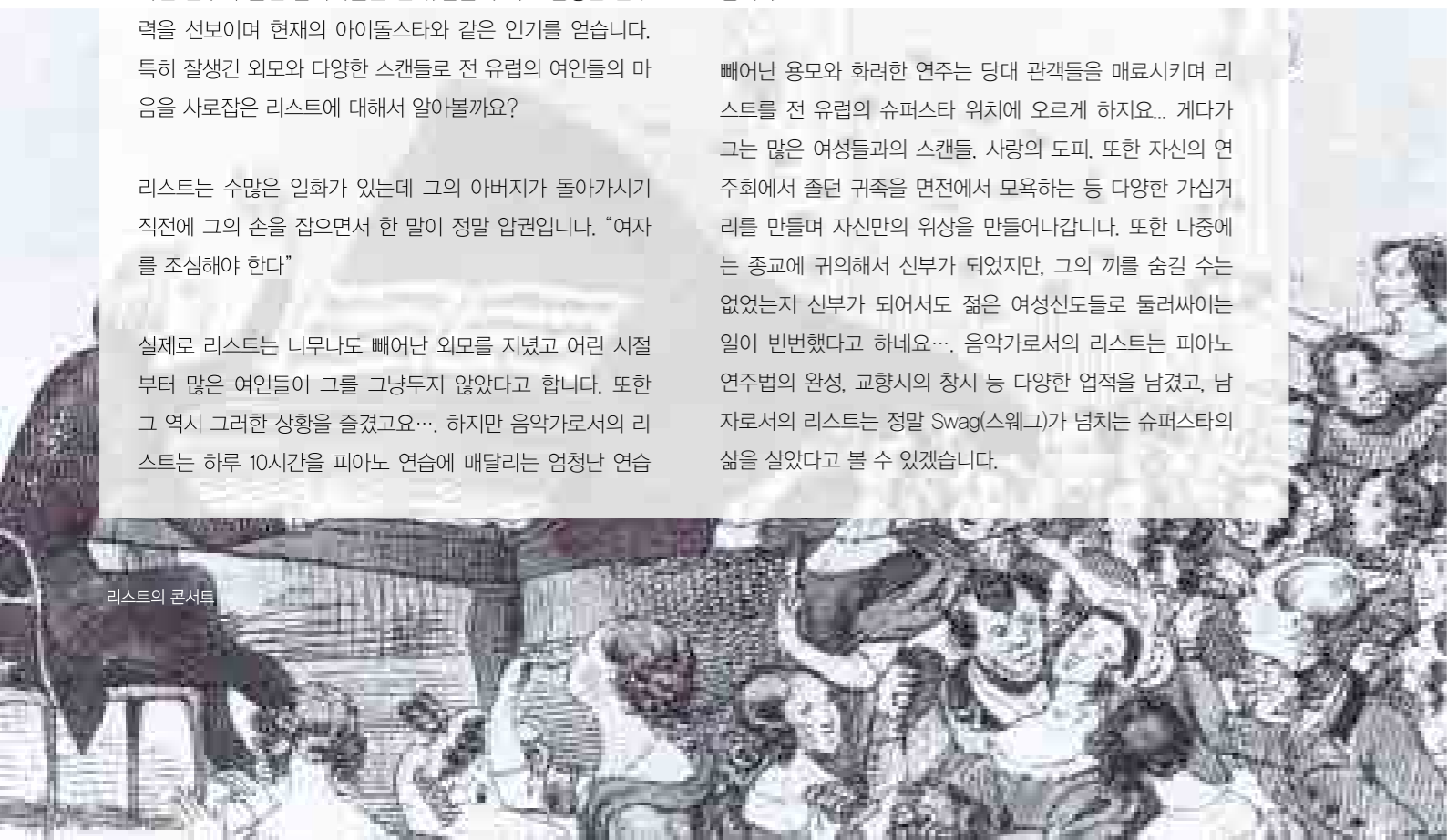
실제로 리스트는 너무나도 빼어난 외모를 지녔고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여인들이 그를 그냥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역시 그러한 상황을 즐겼고요... 하지만 음악가로서의 리스트는 하루 10시간을 피아노 연습에 매달리는 엄청난 연습

베토벤 이후 낭만 음악시대에는 현대적인 피아노의 완성, 악기의 발달로 다양한 비르투오소들이 쏟아져 나오는 클래식 음악의 황금기로 볼 수 있는데요? 걸출한 슈퍼스타 음악가들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음악이 현대의 클래식 연주장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음반도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지요. 저 역시 연주자로서 활동하다보니, '낭만 음악시기 클래식 음악가들의 삶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량을 자랑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연주회에선 피아노가 줄이 끊어질 정도로 격렬하고 화려한 연주를 선보였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본 많은 여인들은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빼어난 용모와 화려한 연주는 당대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리스트를 전 유럽의 슈퍼스타 위치에 오르게 하지요... 게다가 그는 많은 여성들과의 스캔들, 사랑의 도피, 또한 자신의 연주회에서 졸던 귀족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등 다양한 가십거리를 만들어 자신만의 위상을 만들어나갑니다. 또한 나중에는 종교에 귀의해서 신부가 되었지만, 그의 끼를 숨길 수는 없었는지 신부가 되어서도 젊은 여성신도들로 둘러싸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네요... 음악가로서의 리스트는 피아노 연주법의 완성, 교향시의 창시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고, 남자로서의 리스트는 정말 Swag(스웨그)가 넘치는 슈퍼스타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의 콘서트



## 만능 엔터테이너 로시니

낭만음악의 대표적인 거장 리스트는 슈퍼스타의 삶을 살았다면, 또 다른 낭만시대 음악가 로시니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는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음악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심취해서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한 것은 여느 음악가와 같지만, 리스트는 평생을 연주활동을 놓지 않은 반면, 로시니는 30대에 '빌헬름 텔'의 대성공으로 평생을 먹고 살 만큼의 큰돈을 벌고 난 뒤 이제 음악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사실상 은퇴를 하곤 다양한 음식에 심취합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많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물론 조리에 관한 저서까지 쓸 정도였으니 그의 음식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요리사들과 친분을 나눈 것은 물론 그들의 VIP 고객이기도 했고, 심지어 그의 레시피를 이용한 '투르네도 로시니'는 로시니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유명 레스토랑의 주요 메뉴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송로버섯이 들어가고, 거위 간이 함께 조리된 스테이크로 로시니와 당대 최고 요리사 앙토냉 카렘이 함께 개발한 요리로, 그의 이름은 음악사는 물론 미식의 역사에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로시니는 말년엔 자신의 유산을 다 기부합니다. 그 유산으로 탄생한 것이 '로시니 음악원'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즐거운 중장년의 삶, 죽은 뒤에도 기부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딴 음악원을 남긴 로시니는 한평생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 기준으로 보면 리스트는 아이돌 출신 슈퍼스타의 삶, 로시니는 일찍 성공한 유명 작곡가이자 만능 엔터테이너의 삶을 살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활동하는 유명 뮤지션들 중 몇몇은 수백 년 뒤에 음악교과서에 등장하기도 하겠지요. 그 미래에는 어떤 음악이 연주될지, 또한 음악인들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영위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글에서 언급한 음악가들은 엄청난 열정을 음악에 쏟아 부었으며, 그 음악이 현재까지 연주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세대를 초월한 위대한 음악을 남긴 예술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음악가들은 이름은 물론 위대한 음악을 남기고 그 덕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죽은 뒤 수 백 년 뒤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한다는 사실... 음악가에게 이보다 행복한 사후가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은 음악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권순현

-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40여 장의 클래식 개인앨범 발매, 60여 장의 음반 프로듀서로 활약
- 이지클래식, 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체르니 콘서트 등 참신한 공연으로 매진행렬 및 호평
-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출간, 국립중앙도서관 우수도서 선정 및 베스트셀러
- 신한대학교, 송익여자대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 출강, 네오뮤지카 대표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



# 런던과 파리에서 만난

## 특별한 회고전

글 · 사진 김영동



지난 2월 중순, 보름 정도의 일정으로 런던과 파리에 열리는 유명 미술관들의 특별전들을 찾아가보았다. 때마침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특별한 전시회들이 런던과 파리에 있는 유명 현대미술관들이 앞다퉀 기획하고 있었는데 마치 서로 연계된 전시회인양 순서를 정해 이어보는 재미가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서양미술사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에 관해서도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두 도시의 미술관들을 통해 현대 미술사에 대한 공부와 현대미술 자체의 이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을 시도해 본다.



△ 도착이틀날 아침 라우센버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 건물 측면 입구 쪽. 템즈 강 밀레니엄 다리를 앞쪽에 면하고 있다.



라우센버그의 1964년 작품,▷ 'Retroactive II'을 가지고 만든 전시 포스터.



< 테이트모던 라우센버그 특별전 광경. 그의 당대 유명 정치인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모습과 달 착륙 사진이 포함된 작품 'Retroactive II', (1962)이 보인다.

라우센버그, 'Almanac(연감)' 1962. 추상표현주의의 붓질과▷ 함께 차용된 각종 사진들이 혼합오브제로 부착되어 있다.



### 01 런던, 테이트모던(Tate Modern)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회고전〉 1 December 2016 - 2 April 2017

"Discover the artist who changed American art forever"(미국미술을 영원히 바꾸어놓은 작가)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라우센버그를 재조명하는 이 전시회는 지난해 12월에 개막해서 올해 4월까지 이어졌다. 미국 팝아트 작가의 전시를 뉴욕의 모마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먼저 런던의 테이트모던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지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9월 중순까지 열리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 팝아트 작가로 잘 알려진 라우센버그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 미술에서 어떻게 1960년대 팝아트와 행위미술의 출현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라우센버그가 뉴욕 화단에 등단할 때는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전성기였다. 알다시피 추상미술은 화면 전체가 순수한 붓질과 물감으로 덮인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표현행위로 대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창조적인 작가는 그런 회화의 한계를 탐구하면서 재료와 매체를 실험했고 예술과 현실 사이의 벌어진 간격을 메우고자 애썼다. 그 결과 그는 1962년에 실크스크린 페인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찍은 사진과 함께 책과 잡지에서 취한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스크린 인쇄한 다음 그 위에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기법을 연상케 하는 붓 터치들을 적용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행위들이 곧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다시 그림을 통해서 소통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라우센버그의 1962년 작 'Almanac(연감)'에는 책이나 잡지 등에서 선택된 이미지들이 비 특정적으로 병치되어 있다. 그 사진들은 매우 구체적인 이미지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학적인 의도 없이 배치된 관계로 시적인 자유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관객의 반응은 개인적이어야 하며 특정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자유롭게 연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조 타워의 사진은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 지붕에서 라우센버그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이처럼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현실과의 간격이 너무 커져버린 미술에 부분적으로나마 리얼리티를 회복함으로써 20세기 후반의 예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스스로 '컨바인 아트'라고 이름 지은 혼성 오브제 작품들과 함께 라우센버그야말로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가라고 불러야 하겠다.



## 02 런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폴 내쉬(1889-1946, Paul Nash) 회고전〉 Until 5 March 2017

런던서 두 번째 방문지는 영국의 팝아트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시작된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이었다. 이제 막 시작된 전시회여서인지 입장권을 구입해도 3시간 정도 대기해야 한다는 말에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함께 열리고 있는 영국작가 폴 내쉬가 눈에 띄었다. 폴 내쉬의 전시는 지난 해 연말에 시작해 막 끝나기 직전이었지만 관람객은 여전했다.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는 전시를 현지에서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할 수밖에. 20세기 전반 영국의 한 초현실주의 작가가 그린 풍경화들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의 상징적인 작품들에서 자연주의적 근대미술이 추상화 과정을 통해 모더니즘 미술로 변화해 가는 예술 양식의 발전이 관찰되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 호크니의 전시를 알리는 배너가 내걸린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정면부 모습.



△ 테이트 브리튼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회와 나란히 열린 폴 내쉬 회고전의 전시회 포스터.



△ Paul Nash, Events on the Downs, 다운스(구릉) 지역의 이면, 1934.

폴 내쉬(1889-1946)는 영국의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1, 2차 세계대전 시 중군화가였으며 사진작가, 저술가 및 응용미술 디자이너였으며, 20세기 전반 영국의 가장 중요한 풍경화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닛 원(Unit One)'이라는 영국 초현실주의 운동 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모더니즘 미술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작가다. 런던에서 태어난 내쉬는 버킹엄셔에서 자랐고, 슬레이드 미술대학을 나와 풍경화에 집중했는데 잉글랜드 남부지역, 특히 고대의 역사적 유적이 있는 풍경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의 풍경화는 자연주의적인 풍경화를 구상적 요소와 추상적 요소를 결합시켜 강렬한 신비주의의 상징성이 풍부한 그림으로 제작했다.

내쉬는 2차 대전 당시, 공군의 공식화가로서 전투기와 비행에 관한 많은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오랜 천식으로 고통을 겪어왔고 그로인해 1946년 수면 중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1948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한 그의 추모전과 추모공연이 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렸다 한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시기에 그린 그림들은 유년시절과 초기부터 그가 사랑했던 영국 남부지역의 신비한 숲과 구릉지 일대들의 풍경이 더욱 열렬한 색채로 바뀌고 달의 변화와 춘분과 일식 같은 하늘의 상징적 표현과 자연의 조화를 더욱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 Paul Nash, Solstice of the Sunflower 해바라기의 하지(夏至), 1945.

Tate Britain,  
London



거의 매일 약한 비와 안개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던 런던을 떠날 즈음이 되어서야 맑게 갠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파리로 건너오니 화창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로 완전히 바뀌었다. 인상주의 태동에 깊이 관여했지만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청년 '바질의 회고전'과 아주 독특한 추상작가 '사이 톰블리 회고전', 또 기이한 작가 '베르나르 뷔페전'을 차례로 관람했다.

**03** 파리, 오르세 미술관(Orsay)  
 <프레데릭 바질 : 인상주의의 청년> 15 November 2016 – 5 March 2017



< 강 건너 루브르(사진 왼쪽)와 오르세 미술관 그 사이로 멀지 않은 거리에 노트르담 성당의 전면도 보인다.

1870년 보불 전쟁에서 불과 28세 나이로 사망한 프레데릭 바질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몽펠리에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의학공부를 하러 파리에 갔으나 화가의 길로 전환한 그는 모네와 르누아르 등과 사귀면서 인상파가 형성되기 직전까지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가로 평가받는다. 화가로서의 경력은 불과 7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을 볼 때, 일종의 전위 예술이기도 한 186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 운동에 바질의 공로가 얼마나 컸는지 전시회는 밝히고 있었다.

전시는 주제별로 전개시키며 동시에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들라크루아, 쿠르베, 마네, 모네, 르누아르 및 세잔까지 그의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풍부하게 배치되고 그 가운데에 바질의 작품을 사이사이에 놓는 식이었다. 이렇게 대치시키는 방식의 전시는, 1860년대에 프랑스 화단에서 일어난 전위 예술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즉 현대적인 생활과 전통적인 장르의 재해석 그리고 외광파와 야외에서의 그림제작 등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보여주면서 당시 아방가르드 미술에 바질의 공헌이 무엇이었으며 아울러 그의 영감과 대단한 독창성을 함께 조명한다.

1870년 여름, 제작을 위해 파리에서 일시 고향 몽펠리에로 내려온 그는 전혀 뜻밖의 결정을 한다. 보불전쟁이 발발하자 자원해 입대하여 그해 말 전투가 개시되고 첫날 어이없이 죽음을 맞고 말았다. 11월 28일 프랑스군의 첫 번째 공격을 개시하는 동안이었다고 한다. 그때 르누아르는 사술 연대에 가입하기 위해 호출을 받았고 모네는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도피했으며, 세잔은 에스타크로 잠적했고, 드가와 마네는 나중에 파리의 방위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1874년에 인상파 그룹의 첫 번째 전시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을 때 바질은 이미 없었고 그의



Bazille, Summer Scene △ (also known as 'Bathers'), 1869.



< Bazille, Study for 'Summer Scene', 1869.



△ Frédéric Bazille, Family Reunion, 1867. 몽펠리에의 유복한 가정의 출신인 바질은 의학공부를 위해 파리로 갔고 화가가 된 후에도 종종 고향을 찾았다.



△ Bazille's Studio, 1870. 바질은 고향에서 보내주는 용돈으로 비교적 여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의 화실은 동료들과 함께 사용했고 방문 장소가 되었다.

작품은 단 한 점도 전시되지 않았다 한다. 우리가 아는 흔한 미술책에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목록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1870년의 비극 때문이었다. 프레데릭 바질에게는 그의 삶을 희생시켰고 미술사에서는 인상주의 탄생의 유례없는 한 장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었다고 이 전시회는 기술하고 있었다.



< Frédéric Bazille, Ruth and Boaz, 138 × 202 cm, 1870. 몽펠리에 파브르미술관 소장. 신비한 서정성이 감도는 이 작품은 그의 고향 몽펠리에와 가까운 리옹 출신의 또 한 명의 거장 피에르 드 샤브란의 영향이 역력해 보인다.

바질의 마지막 시기의 작품들을 보면 그의 발전이 인상주의로 향하는 경로 말고도 다른 풍부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룻과 보아스'(1869) 같은 신비한 서정성 넘치는 작품이나 입대 시 자신의 직업을 역사화가로 기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어쩌면 어떤 종합적인 스타일을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낳게 한다.



04 파리, 톰피두센터(Centre Pompidou, Paris)  
 〈사이 톰블리(Cy Twombly) 회고전〉 30 November 2016 – 24 April 2017

2011년에 타계한 미국 추상화가 사이 톰블리의 대규모 회고전을 파리의 톰피두에서 보게 된 것도 기쁜 일이었다. 그의 작품들을 추상표현주의 경향이란 선입견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최후의 작품 중 하나인 '박쿠스'(2008) 연작을 테이트모던에서 보고 감동을 느꼈던 일과 뮌헨 컨템퍼러리 미술관인 브란트호르스트에 설치된 '레판토 해전'(2001) 시리즈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낙서 같은 선들과 암호,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 찬 그의 작품들 앞에서 진지하게 관찰하는 파리 시민들의 예술적 관심도가 놀라웠다. 이 독특한 작가의 기이한 표현들을 분석하여 그가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확대해 어떻게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개척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 톰피두센터 건물 외벽에 내걸린 사이 톰블리전 포스터.

톰피두센터의 이번 사이 톰블리 전시는 유럽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대형 회고전이라고 한다. 그것도 파리에 서만 개최한 전시로서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한다. 톰블리의 연작 중 세 가지 위대한 시리즈 - 코모도스에 관한 9개의 담화(1963), 일리암에서의 50일(1978), 세스토리스의 대관식(2000) - 를 중심으로 조직된 이 전시는 작가의 삶에 걸쳐 만든 140점의 페인팅, 드로잉 및 사진들을 연대순으로 채웠다. 그의 작품 세계가 지닌 복잡성과 아카데미함, 동시에 관능적인 것에 대한 통찰력이 담긴 유명작품들이 출품되었고 그 중 많은 수가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전혀 전시된 적이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Centre Pompidou,  
Paris



△ 넓은 공간의 전시 면적과 훌륭한 원도 뷰어를 가진 톰피두센터 전시장 내부. 전시된 사이 톰블리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톰블리는 다수의 문학가를 배출한 미국 남부 버지니아 주 렉싱턴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가족 환경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수성을 키우며, 그림에 대한 관심을 장려한 분위기였다. 학창시절 그는 유럽 여행을 통해 "라스코의 선사시대 동굴 그림을 연구하기"를 원했으며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박물관들, 고딕과 바로크 건축 및 로마 유적을 보려고 계획했다. 그 자신이 "원시적, 의식적, 물신주의적 요소들에 이끌렸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동행해 1952년 나폴리를 여행했고 이후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되었다.

그의 탐구는 주로 추상표현주의의 선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주제는 종종 유럽의 지명이나 혹은 고전 설화, 문학 속의 인물들을 통해 역사적 사건 등을 해석하고 추구한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가 지배하던 전후 미국 문화와 그가 청년시절 발견했고 그 후로 자신이 경도되었던 고전적인 지중해 문화를 연결한 작가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각 라인은 이제 고유한 내적 역사를 가진 실제 경험이다. 그것은 도해하지 않는다.  
 - 그것은 그 자신의 실현에 대한 감각이다. 그 이미지(像)는 시각적 지각의 추상적 전체상이라기보다 개인적인 또는 제각각의 탐닉에서 나온 것들이다.” (사이 톰블리)



△ Sperlonga, Drawings, 1969. 이탈리아 로마시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해변 휴양도시 스페르롱가 해안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 정면에 보이는 작품은 Untitled (Bacchus), 2008. 바쿠스제의 향연에서 배풀어지는 춤의 울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노경에 이른 톰블리의 무한히 자유로워진 붓질의 행위도 함께 감지된다.



## 05 파리, 시립미술관(The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베르나르 뷔페(1928-1999, Bernard Buffet) 회고전〉  
From 14 October 2016 - 26 Februar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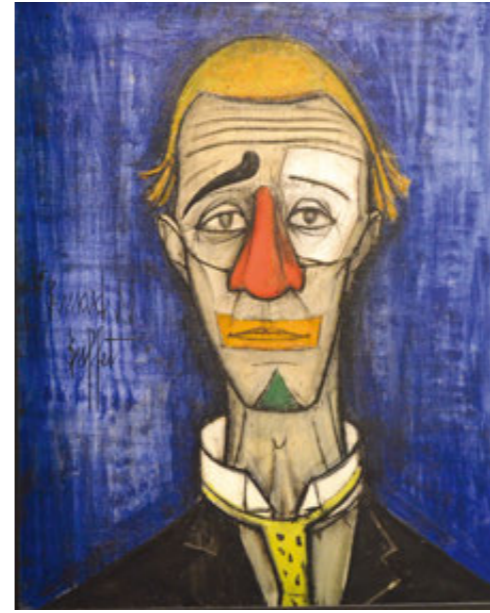
△ Le Buvreur, 1948. 쓸쓸함과 고독을 느끼게 하는 '혼술'을 들고 있는 남자를 그렸다. 전후 프랑스 사람들의 가난하고 황량한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뷔페의 초기 작품의 한 전형이다.

파리 현대미술관은 베르나르 뷔페(1928-1999)의 작품 회고전을 조직하고 열고 있었다. 추상화가 주도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프랑스 미술에서 독특하게 구상예술을 펼친 베르나르 뷔페의 작품세계를 통해 예술사조와 무관하게 조형 예술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상과 매력적인 개성의 산출들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그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프랑스 화가들 가운데 한 명이지만 또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작가들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선별된 백여 점의 회화들을 통해 이 전시는 실제로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전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대미술사에서 소위 주제의 실종이라는 맥락에 반해서 이 작가가 역사적 회화(역사화)를 그려왔다는 패러독스(역설) 때문이다. 대단한 인기와 대중적 성공을 거둔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에 대한 공공미술관과 예술계의 거절이 있었다는 점, 이어서 작가의 작품을 보면 긴축과 빈약한 양식을 특성으로

하면서도 실제 작가의 삶은 재정적 편의가 혼합된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여하튼 일찍이 천재적인 작가로 각광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는 작가가 프랑스 국내서 정작 평가가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늦기 전 적절한 시기에 그의 예술적 존재를 재조사하고 조명하는 최초의 전시란 점에 기획의 무게가 실렸다.

한때 피카소에 비견될 정도로 그의 조숙한 재능이 화제가 되었고 뒤따라 온 대중적 인기는 그의 그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했다고 한다. 레종도노르 훈장을 받았고 아카데미 회원 자격도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전시회들을 언론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형 프랑스 미술관들은 그의 작품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엄청난 다작과 끊임없는 주제의 변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인색했다는 사실과 비평계의 일치된 인정이 어려웠다는 점이 쉽게 납득하지 않지만, 여하튼 대중적 인기와 예술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파리현대미술관과 함께 몽마르트르 미술관에서도 규모는 작았지만 뷔페전을 기획하여 동시에 개최하고 있었다.



△ 베르나르 뷔페, 피에로,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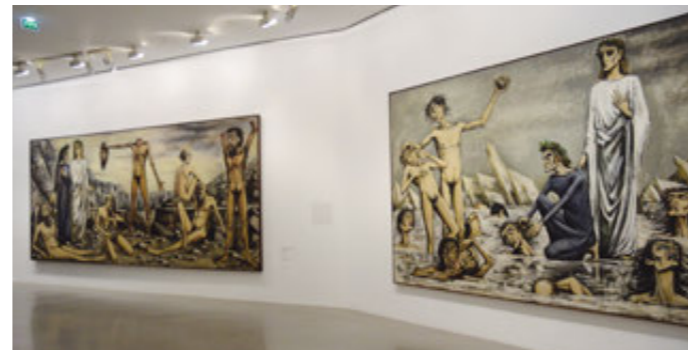


△ Les Plages, Le Parosol(The beaches, the Parosol) 1967  
파리, The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 몽마르트르 미술관에서 개최한 베르나르 뷔페전을 알리는, 미술관 외벽에 걸린 배너.



▽ 'L'Enter de Dante', 1976. 단테의 지옥편을 주제로 그린 연작 시리즈, 파리현대미술관.



김영동

-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02년, 미학 미술사 전공)
- 매일신문사 근무(1983~1998)
-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사와 미술이론 강의
-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2014. 10~12) 매일신문 연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 옷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 진행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 (한티재, 2011)



# 산길 물길 사람길이 함께 흐르다

글·사진 권다현



## ‘낙동강 세평 하늘길’에 깃든 이야기



참으로 오랜만이다. 저 모퉁이를 돌아서면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건는 내내 설레던 길. 경북 영주와 강원도 강릉을 잇는 철도인 영동선 중에서도 가장 오지구간으로 꼽히던 봉화군의 승부역에서 출발하는 낙동강 세평 하늘길은 5km 남짓한 거리에 산길과 물길, 그리고 소박한 산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흐른다.

### 산길, 물길, 사람길 출발선\_승부역

이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사람길은 봉화의 승부역에서 출발한다. 매년 겨울이면 환상선 눈꽃열차가 운행될 만큼 아름다운 설경으로 유명세를 얻은 승부역이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산골 중의 산골, 오지 중의 오지로 꼽혔다. 근처 철암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철도가 무엇보다 필요했지만 이처럼 깊은 산골짜기에 기차길을

놓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터. 한국전쟁으로 한 차례 중단되었던 영암선(영주~철암) 공사는 이후 최고의 기술진을 투입해 공사를 재기했는데, 지금까지도 한국철도 최대의 난공사로 꼽힐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영암선의 완공을 기념하는 비석이 이곳 승부역에 자리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늘도 세평이요  
꽃밭도 세평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송의 동맥이다

승부역 앞마당에는 제법 큰 규모의 시비가 자리해 눈길을 끄는데, 흥미롭게도 이 시는 과거 승부역에 근무했던 역무원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 높이 찌를 듯 솟아오른 산줄기 사이에 자리한 기차역이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하늘도 세 평 정도로 좁게 보인다고 표현한 것이다. 산골 깊숙한 간이역의 풍경을 꾸밈없이 담아낸 이 시는 지금껏 승부역을 상징하는 글귀로 통한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의 '세평'도 이 시에서 딴 이름으로 출발점인 승부역을 의미한다.

승부역 시비와 영암산 완공비를 지나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철교 아래로 느긋하게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만날 수 있다. 마침 기차라도 지나가면 '철커덩 철커덩' 쇠덩이끼리 부딪히는 굉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곳 낙동강 세평 하늘길 만의 특별한 매력이라 하겠다.



**낙동강 비경길(승부역~양원역)**

낙동강 세평 하늘길의 1코스에 속하는 낙동강 비경길은 승부역에서 출발해 양원역까지 이어진다. 이 길은 과거 양원마을 사람들이 승부역에서 내려 집으로 되돌아갔던 삶의 애환이 서린 길이기도 하다. 지금도 기차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양원마을 사람들은 양원역이 세워



지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었던 승부역까지 무려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오갔다. 봉화 장날에 다녀올 때면 양원마을을 지날 때쯤 무거운 짐을 철로에 휩 던져 놓고는 되돌아오는 길에 찾아갔다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전해진다.

그러던 지난 1988년, 양원역이 기차가 정착하는 임시승강장으로 결정되었을 때 마을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벽돌 한 장씩 들고 나와 지금의 양원역 대합실을 세웠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역사인 셈이다. 누군가에겐 소박하다는 말도 과하게 느껴질 만큼 보잘 것 없는 역사일지라도 양원마을 사람들에겐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공간이다. 때문에 지금도 마을사람들끼리 순번을 정해 매일 아침마다 대합실을 쓸고 닦는다.

**정차시간 10분의 여유**

몇 년 전부터 양원역을 지나는 관광열차인 백두대간협곡열차의 운행시간에 맞춰 아담한 시골장터가 열린다. 양원마을의 순박한 기운을 가득 품은 산나물로 전도 부쳐내고 매콤달콤한 돼지껍데기볶음이 보는 이의 입맛을 돋운다. 10여분의



정차시간동안 한 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잔막걸리는 양원역의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로 통한다.

영남의 젓줄로 통하는 낙동강 상류의 때 묻지 않은 풍광을 두발로 더듬어 걸을 수 있는 낙동강 세평 하늘길은 물길이 좁아졌다 넓어지는가 하면, 유유자적 고요히 흐르다 거센 물살을 이루기도 한다. 그 옆으로 정다운 오솔길이 이어지다가 제법 숨이 차도록 높은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잠시 숨을 고를라치면 기세 좋은 화물열차의 엔진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토록 다양한 풍광을 간직한 낙동강 세평 하늘길이기에 걸음걸음마다 지루할 새가 없다.

자동차로는 만날 수 없는 때 묻지 않은 풍광을 잘 간직한 낙동강 세평 하늘길은 직접 걸어야만 그 속살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 속도와 편리에 익숙한 삶은 주변의 소소한 행복과 가치에 눈 돌릴 새가 없듯, 어쩌면 우리의 여행도 조금은 느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숨겨져 있던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



**권다현**

- 현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홍보이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 저서 '내일로 기차로' '나 홀로 진짜 여행' '만원으로 떠나는 초저가 당일치기' 등 다수
- 2014 한국관광의 별 단행본 부문 대상(문화부장관상)
- 현재 동아일보 '대한민국 구석구석' 칼럼 연재
- 현재 MKBS1 라디오 <라디오 중심 김승채입니다> '권다현의 테마여행' 진행





# 권기철 초대전 '세상을 그리다'

달서문화재단 출범 3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권기철 작가의 '세상을 그리다' 초대전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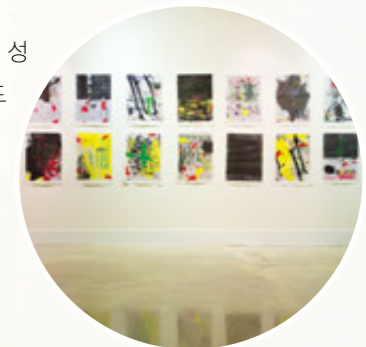
그간 장르와 분야를 넘나드는 실험성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던 권기철 작가는 지난 1월부터 제주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30년간의 창작 활동에 대한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왔다. 작가로서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지역 화단의 예술혼을 빛내온 중견작가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권 작가의 창작태도는 청년 작가 못지않게 활발하다. 이런 작가의 열정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으며, 지역문화예술의 견인차가 되고자 노력하는 달서문화재단의 지향점과 상통함을 보여 주는 듯 했다.

전시장은 작가의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에서 비롯된 거칠면서 담담한 삶의 기억들로 표출된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이미지의 평면작품과 설치작품 70여 점으로 채워졌다. 물감을 들이부은 듯한 드리핑(dripping)기법이 부각된 한층 자유로워진 형상의 역동적이며 강렬한 신작들이었다. 또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전시장 내부를 작가는 수십 회의 작품발표로 쌓아온 내공으로 관람객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돋보이는 연출 솜씨로 작품의 독창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물론 감상의 즐거움도 함께 선사하였다.

전시 기간 중 미술작품을 통한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두 차례 캘리그래피 시연과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는 관람객의 호응과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기획자의 의도에 권 작가가 흔쾌히 응해줌으로써 가능했으며, 더불어 작가의 의도가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진정성 있는 전시가 될 수 있었다.

권기철의 '세상을 그리다'는 작가의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이 예술의 길을 걷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도 역동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준 전시로 기억되기에 충분했다. 앞으로도 쉼 없이 발전하는 권기철 작가의 창작세계를 기대해본다.

글 · 자료 이정란(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기획)





# 야외조각전 2017 '미술의 숲'

예술은 미학적, 철학적, 혹은 문학적 학설이 아니다.  
예술은 하늘과 산 그리고 돌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 김환기 화백 -

지난 4월 봄부터 열린 2017 '미술의 숲' 야외조각전이 7월까지(4월 4일~7월 2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소나무정원 및 야외공연장 등 아트센터 전관에 전시돼 많은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의 관심과 함께 예술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2017 '미술의 숲'에서 작가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소재를 활용해 지나치지 않은 정도의 '삶의 깊이'를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성찰과 진화하는 예술세계 속 순수한 작가적 정신을 그대로 투영해내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김성수 작가의 '사람과 꽃과 새' 목재 조각을 비롯해 김우진의 '평범한 사슴', 김경민의 '첫 만남', 김성민의 '탈출구', 김태인의 '우연한 팽창', 박순민의 'LET'S GO', 서현규의 'Mirroring', 정의지의 'Regenesi-Tiger', 조덕래의 'Enclose-Human', 최혜광의 '척들의 봄나들이' 등으로 다양한 주제와 다채로운 소재로 제작된 대형작품들로 채워졌다. 각각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미와 의미를 전달하는 야외조각품들은 아트센터를 찾아온 관람객들의 포토존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다.

3달 동안 아트센터 전관을 예술공간으로 만들어주었던 2017 '미술의 숲'은 이제 막을 내렸다. 내년 야외조각전을 기대하며 지면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본다.



3	2
	1

1. 김경민 \_ 첫만남 / 230×100×120cm / 청동, 우레탄 도장
2. 김성민 \_ 탈출구(Way-out) / 250×160×90cm / Steel
3. 김성수 \_ 사람과 꽃과 새 / 190×60×160cm / 나무에 채색



5	6
8	7
10	
4	9

4. 김우진 \_ 평범한 사슴 / 250×160×90cm / Stainless steel, 우레탄 채색
5. 김태인 \_ 우연한 팽창 / 300×300×400cm / 철, 공기
6. 박순민 \_ Let's Go / 240×150×120cm / Steel, 우레탄 도장
7. 서현규 \_ Mirroring/ 가변설치 / Stainless steel mirror
8. 정의지 \_ Regenesi-Tiger / 400×150×160cm / 버려진 양은냄비, 리벳, 철, 스테인리스
9. 조덕래 \_ Enclose-Human / 180×200×240cm / stainless steel, stone
10. 최혜광 \_ 척들의 봄나들이 / 가변설치 / 레진

글 김은주(문화정책실장) 사진 이정란(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기획)



# 스테판 피 재키브 & 지용

## Dear Clara

뜨거운 남자 스테판과 지용이 연주하는 사랑의 찬가...

글 · 사진 이성욱(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62



지난 6월 23일 오후 7시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스테판 피 재키브와 지용의 매혹적인 앙상블 '디어 클라라'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로베르트 슈만, 요하네스 브람스, 그리고 그들의 뮤즈 클라라 슈만의 러브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딴 이번 프로그램은 말할 듯, 말하지 못하는 사랑의 감정을 연주하며, 두 연주자는 이전에 찾아보기 힘든 절묘한 곡들로 선정했다. 서로를 유일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두 사람의 무대는 90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고요한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연주력으로 관객들의 청각을 설 새 없이 자극하였다.

### # 익스트림 듀오가 들려주는 세 사람 사이의 음악적 대화

익스트림 듀오(스테판 피 재키브와 지용)는 클라라 슈만의 '세 개의 로망스' 중 'Andante molto'로 차분하게 1부 공연을 시작했다. 이어서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중 '달밤'을 연주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호수 위의 달빛을 바라보는 느낌을 자아내었다. 이후 다시 '세 개의 로망스'로 돌아와 'Allegretto, mit zartem Vortrage'를 연주했는데, 스테판의 걱정적인 보잉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바이올린 음색과 지용의 섬세한 터치로 만들어내는 서정적인 피아노 사운드가 묘묘한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의 탄성을 이끌어냈다.

초반부의 정열적인 분위기를 이어 브람스의 'F-A-E 소나타' 연주가 시작되었다. (F-A-E(frei, abenreinsam)는 자유롭게, 하지만 고독하게 라는 뜻) 제목에 어울리게 무척 강렬한 곡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스테판은

짧은 활로 교체하여 연주하였으며 지용 또한 곡의 흐름에 맞춰 강렬한 연주로 바이올린 사운드에 부응하였다. 인터미션 후 2부는 피아니스트 지용이 들려주는 슈만의 '아라베스크'로 시작되었다.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의 엄청난 반대로 잠시 이별하며 지내던 시기에 작곡된 곡이었다. 지용은 기존의 연주형태와는 다르게 새로운 해석을 선보였는데, 특히 레가토나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에서 느껴지는 선율의 질감을 매우 창조적으로 해석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좀 더 강렬하고 극적인 스타일로 변환시켜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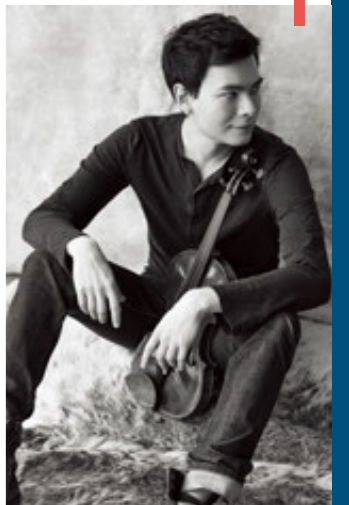
마지막 곡은 지용과 스테판이 함께 입장하여 브람스 소나타 1번을 연주했다. 평소 부슬부슬 봄비 내리는 날에 어울리는 곡이라 여겼는데, 여름에 듣는 브람스 소나타의 색다른 분위기가 청중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아름다우면서도 걱정적인 두 사람의 앙상블은 이번 곡에서 리사이틀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였다. 모든 연주가 끝나고 5번의 커튼콜 이후 앙코르 곡으로 슈만의 헌정과 Abandoned Op.85를 끝으로 한 편의 영화 같았던 러브스토리는 차분하게 마무리 되었다.

클라라, 슈만 그리고 브람스... 사랑의 아픔으로 엮여진 3사람의 곡들로 써내려간 이번 공연에 대해 피아니스트 지용은 "1부가 클라라로 인한 사랑의 기쁨과 슬픔이라면 2부는 그 사랑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수용과 그 고백"이라고 설명했다.

정통 클래식 공연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드라마 적인 연출과 최정상의 연주가 곁들여진 이번 공연은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까지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와 피아니스트 지용, 익스트림 듀오의 끊임없는 레퍼토리 개발과 음악에 대한 거침없는 열정은 이들의 다음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 #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는

스테판 피 재키브는 한국대표무인 故 피천득의 외손자로 현재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빈틈없는 기술과 시적인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가늠할 수 없는 재능"이라고 격찬한 재키브는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협연자로서 트레버 피노크, 앤드류 데이비스 경, 한누 린투, 안드리스 넬손스, 야니 네제 세경, 미하일 플레트노프, 유리 테르미카노프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성공적인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2013/14 시즌 카네기 홀이 주최하는 데뷔 리사이틀에서 데이비드 풀머의 신작을 세계 초연, 성공리에 펼쳤으며, 이어 마티아스 핀처가 지휘하는 도이체 캄머필하모니에와 풀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세계 초연한다.



### # 피아니스트 지용은

지용의 강점은 그만의 창의적인 비전이다. 직접 춤으로 표현한 바흐(Bach Exhibition, 2013), 슈베르트를 표현한 비주얼 아트(Untitled - Pursuit of Happiness, 2015) 등 무용, 영상, 연극 등 장르 간의 협업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세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그래미 시상식 중 미국 전역에 방송, 엄청난 화제 속에 유튜브 조회수 240만을 넘는 안드로이드 캠페인 광고의 주인공이 바로 지용이다. 시카고 트리뷴이 "반드시 대성할 것이 틀림없는 피아니스트"라고 극찬한 지용은 어릴 때부터 그의 강렬한 존재감과 인상적인 테크닉 구사로 찬사를 받았다. 지난 시즌, 링컨센터 엘리스 돌리 홀 데뷔 무대로 세인트 루크스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연주, 뉴욕 타임즈의 극찬을 받았다. 2017년부터 워너 뮤직을 통해 새로운 음반이 출시될 예정이다.



# 2017 JAZZ IN DAEGU FESTIVAL

각 대륙별 재즈와 월드뮤직을 한눈에...

글 · 사진 이성욱(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 2017 '재즈 인 대구'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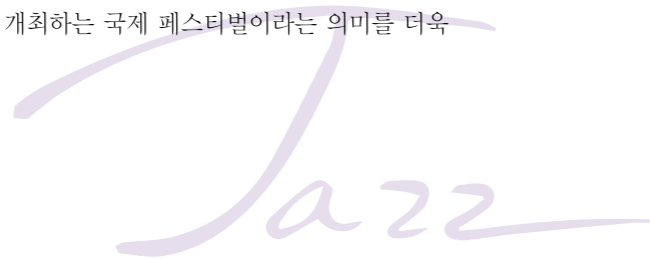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열린 2017 '재즈 인 대구' 페스티벌은 재즈 연주자 및 매니아들의 크나큰 관심 속에 화려한 무대로 펼쳐졌다.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주최로 올해 2회째인 2017 '재즈 인 대구' 페스티벌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뮤직위크(Seoul Music Week)'의 대구 지역 로드쇼로 진행되었다. 지역 및 해외의 우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재즈 및 월드뮤직을 선보이는 동시에 지역의 국제문화행사 개최의 자생력을 배양하고자 기획된 페스티벌로, 지난해 열렸던 제1회 '재즈 인 대구'에 1,300명 이상의 재즈 애호가 및 관람객들이 다녀가 성황리에 치러진바가 있었다.

2017 '재즈 인 대구'에는 메인 스테이지 8팀과 프린지 스테이지 3팀, 총 11팀이 참가했다. 대한민국 정상급 브라스 빅밴드인 '볼케이노 리틀 빅 밴드'가 20일 첫 공연으로 2017 재즈 인 대구의 시작을 알렸고 21일 세 번째 공연으로 국내 최정상급 여성드러머인 서미현의 열정과 감성을 담은 재즈 밴드 '서미현 트리오'가 화려한 테크닉의 즉흥연주를 선보였다.

또 청룡홀의 메인 공연에 이어 야외광장에서는 프린지 무대가 시간대별로 선보였다. 지역 우수 신인 재즈밴드인 '트라이어드', '박예령 트리오', '재즈 버스'가 출연하는 프린지 공연으로 인해 축제 시작부터 끝까지 공백 없이 재즈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점이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지역출신의 우수한 밴드들의 참가로 인해 대구에서 개최하는 국제 페스티벌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 달서구 뮤직 페스티벌을 넘어 지역 대표 음악 축제로의 첫 걸음

해외 참가팀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밴드들이 초청된 만큼 화려한 테크닉과 대중성을 겸비한 음악 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살아있는 일렉 베이스의 거장 '에르네스토 홀만 에스노재즈 트리오',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 온 시적인 재즈를 연주하는 혼성 듀오 '순드리 필링', 집시 음악과 발칸 그루브, 스카를 재즈로 녹여내는 세르비아의 '네이크드'가 첫 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음 날엔 부드러운 연주 스타일 뒤 감춰진 강력한 그루브를 담아낸 이스라엘의 '에후드 에톤 트리오', 조니 미첼을 연상키는 목소리와 무드의 브라질 싱어 송라이터 '제니퍼 소우자', 캐나다의 '복스 삼부'가 출연하며 각 대륙의 다양한 재즈를 선보임으로서 관객들의 각기 다른 취향을 만족시켰다.

특히 재즈 인 대구의 대미를 장식한 캐나다의 '복스 삼부'는 노마딕 매시브(Nomadic Massive)음악이라는 전제로 완전히 새로운 힙합으로 재즈가 가진 즉흥성과 힙합이 가진 그루브 감이 합쳐짐으로 인해 객석의 관객들도 모두 일어나 연주자들과 함께 리듬을 타며 음악적 호흡을 맞췄다. 마지막 곡에서는 관중 일부가 무대에 올라오게 하여 같이 춤을 추는 등 뮤직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게 만들었다.

'재즈 인 대구'의 특징은 장르의 보존을 통해 페스티벌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성을 놓치지 않는 콘셉트를 지향한 점과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즈 및 월드 뮤직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구성된 라인업은 현재 세계 재즈음악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으며 재즈 마니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려는 의지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민들에게 어필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먹거리 부스나 플라마켓 부분에서도 트웰브 키친, 지오네, 파이프 커피 등 10여 개의 고급 레스토랑과 프렌차이즈 커피숍, 다양한 콘텐츠의 마켓들이 참여함에 따라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던 다수의 관객들은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진다"면서, "지난해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내실 있는 라인업, 세계 정상급 연주수준, 다양한 부대행사 등 모든 부분에서 발전된 모습을 선보인 2017 '재즈 인 대구'가 달서구 뮤직 페스티벌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봄바람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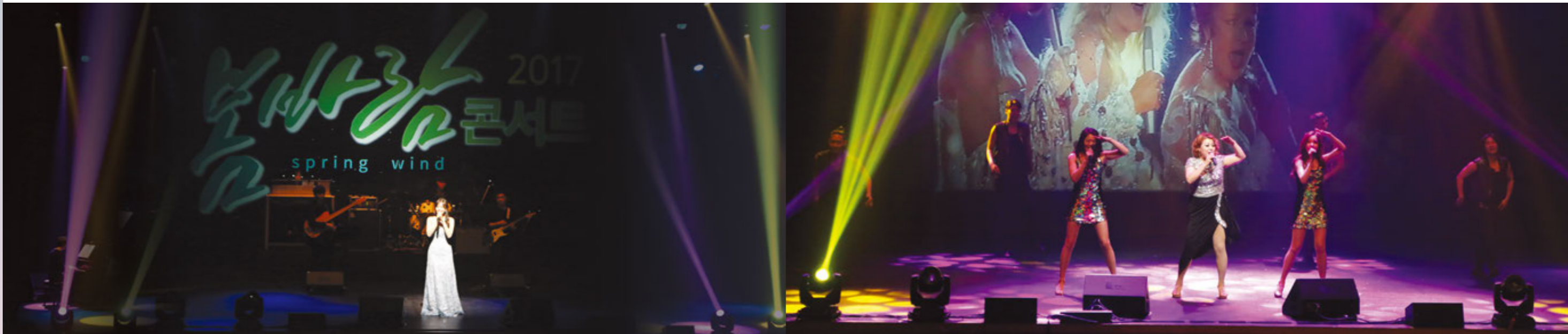
봄바람에 실려 오는 문화예술 향기

글 김은주(문화정책실장) 사진 달서문화재단

# Concert



이어서 10명의 남성중창단 '아르스노바'가 '풍문으로 들었소', '마이 썬', '이문세 노래 메들리' 등 가요를 독특한 편곡과 퍼포먼스로 들려줘, 관객들 모두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신나는 중창의 무대를 선보였다. 그 다음, 대구에대실용무용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전효진댄스컴퍼니'가 'Thunderstorm' 제목의 탭댄스 군무를 선보였다. 평소에 보기 드문 '탭댄스' 공연에 관객들의 흥미를 더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머릿결을 쓰다듬는 4월 7일 저녁, (재)달서문화재단 3주년 기념 축하 공연인 '봄바람 콘서트'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오후 7시 30분 개최됐다.

'봄바람에 실려 오는 문화예술'을 지역민과 함께 향유하고자 마련한 '봄바람 콘서트'는 그야말로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을 나누는 자리로 채워졌다. 다양한 분야의 뮤지션들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 신나는 볼거리와 매력이 넘치는 풍성한 무대로 채워졌으며, MC 이도현의 다정다감한 멘트와 부드러운 진행도 돋보였다.

축하무대 오프닝은 비보잉과 한국무용이 결합된 '로우패밀리'의 '춤추는 대한민국', 고난도의 비보잉과 부채춤이 어우러지는 다이내믹한 무대에 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이어서 '신델라와 텔라벨라밴드'가 들려주는 고풍적인 무대에서 특히 신델라는 청아한 음색으로 '물망초', '볼라레', '낭만에 대하여' 등 봄밤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노래를 선사해, 관객들을 사로잡고 말았다.

마지막 무대인 '홍지민과 더 뮤즈'의 콜라보 무대는 뮤지컬의 진수만을 골라 듣는 좋은 기회였다. '말 하는대로', 'One night only', '열정', '댄싱퀸' 등 유명 뮤지컬과 가요를 시원하게 열창한 홍지민과 더 뮤즈 멤버들은 직접 관객을 위한 생일 이벤트까지 선사해, 다른 관객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홍지민의 마지막 노래가 끝나도 관객들은 떠날 줄 모르고 계속 앵콜을 외쳤다. 심성 좋은 홍지민 역시 관객들의 요구에 앵콜을 두 곡 더 부르소서야 공연을 마쳤다.

두 시간이 넘는 공연을 함께 한 류순희 씨는 "비보잉 퍼포먼스에서 감성 넘치는 성악, 매력적인 탭댄스, 화려한 뮤지컬까지 눈과 귀가 호강하는 기분"이라며 "이처럼 신나고 알차게 꾸며진 무대는 좀처럼 보기 힘들 것"이라며 함께 온 친구들과 엄지를 치켜세웠다.

기획자나 스태프들 모두 순조로운 진행과 무사히 마친 안도감과 함께 관객들이 보여준 호응과 만족감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흐뭇한 기분과 함께 기획자의 머리는 더 복잡해졌다. '내년 무대에서는 어떤 기획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정서를 업(UP) 시켜나갈지' 고민되기 때문이다.

# Music





# “인상적인 인상깊은 인상주의”

예술아카데미  
'예감(예술, 아는 만큼 감상한다)시리즈' 중에서

글 · 사진 류정선(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검은색 셔츠, 큰 뿔테 안경, 공기머리를 한 남자가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상적인. 인상 깊은. 인상주의.' 강의의 맡은 최훈락 피아니스트이다. 피아노 앞에 다가서며 그가 말했다.

“어쩌다 보니 새벽에 연주를 하게 되네요. 제게 아침 9시 반이면 거의 새벽이거든요.(하하) 어제 도 공연이 있어서 오늘 새벽 2시경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살짝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은 피아니스트 최훈락의 얼굴에는 어느새 피곤한 기색이 사라졌다. 잠 못 드는 한여름 밤에나 어울릴 법한 잔잔한 선율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프랑스 인상주의 대표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이었다. 초여름 아침 10시에 듣는 '달빛'이 제법 잘 어울렸다.

지난 달 16일 멋진 연주와 강의로 수강자들을 매료시킨 '최훈락의 인상주의' 강연을 지면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오전 10시, 하나 둘씩 수강자(관객)들이 모여 자리를 채우자 강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관객과 만나려고 하니 어색하네요. 좀 전까지 손이 풀렸나 싶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하하)”

연주자 자신과 바로 앞에 앉은 관객(수강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인상주의 강의는 피아니스트 최훈락의 유쾌한 입담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으로 이어졌다.

“인상주의”라고 하면 먼저 회화를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만큼 인상주의 음악은 회화만큼 익숙하지는 않지요. 모호한 분위기에,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아 다소 멜랑콜리(melancholy)하기도 하고 때로는 난해하기도 하지만, 들어보면 우리 귀에 아주 낯설지도 않답니다.”



Piano

## Classic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파리의 예술가들은 낭만적이고 현대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세련된 스타일과 절제된 감정을 추구하였다.

독일이 주도권을 장악했던 후기 낭만주의에 반발하여, 주관적이고 격렬한 감정보다는 순간적 표상,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중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가장 진보적 예술가로 평가받는 작곡가 중 하나인 '클로드 드뷔시'는 전통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며, 소재에 구속받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표현하는 예술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마치 인상주의 회화에서 빛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색채를 있는 그대로 담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이어 인상주의 음악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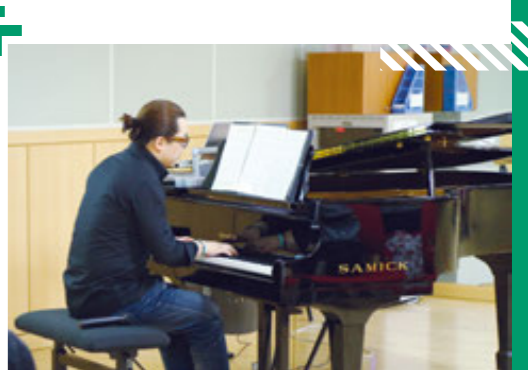
작곡가 드뷔시의 소개와 함께 인상주의 이야기를 마치자 드디어 기다리던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최훈락 피아니스트가 들려준 첫 번째 연주는 인상주의 사조에서 의미가 큰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1894)', 여전히 모호하고 환상적이고 관능적이다. 그러면서도 참 아름답다. 참석한 수강생 모두 피아노 선율에 흠뻑 빠졌다. 계속해서 '바다(La Mer, 1905)', '아마빛 머리의 아가씨(La fille aux cheveux de lin, 1910)', '달빛(Clair de Lune, 1890)' 등 주옥같은 명곡의 배경이 소개되고 피아노로 연주되었다. 이외에도 에릭 사티, 모리스 라벨 등 당대 최고의 인상주의 작곡가들의 곡으로 구성된 강연이었다.

다년간 다져진 최훈락 피아니스트의 연주 실력과 강의가 적절한 유머로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이어졌다.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세기말 음악가들의 '열정'과 '사상'을 연주와 강의로 고스란히 전해준 최훈락의 '인상주의'는 참으로 '인상적인' 클래식 수업이었다. 클래식으로 시작한 오전 10시, 강사나 감상자 모두에게 다소 이른 감이 있었지만, 강의가 시작되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2시간이 지났다. 참석한 분들의 음악 사랑도 사뭇 진지했다.

“클래식하면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많은데요, 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 100여 년 전 당시 예술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작곡가들의 '열정'을 읽으며 음악에 몸을 실어 보는 건 어떨까요?”라며 최훈락 피아니스트의 인상적인, 인상깊은, 인상주의 특강이 마무리됐다.

곡명과 작곡가의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열정에 감동받고 음악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예술아카데미에서 예술감

상교육(인문특강)을 시작한 지 2년 남짓 되었다. 그동안 클래식, 명화감상, 영화,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났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을 위해 계속해서 참신한 예술감상교육을 개발할 예정이다. 더 많은 지역민들이 예술아카데미에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가며 예술로 소통했으면 한다.



impressionism



# Art event

‘문화만개’에 실리는 단신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공연, 전시, 강좌 및 달서구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70

class



performance



exhibition

cultural art

## 01

### 2017 장미꽃 필(Feel) 무렵

‘사랑이 꽃 피는 장미정원’이란 주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최된 장미 축제, ‘2017 장미꽃 필(Feel) 무렵’이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곡장미공원에서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12일 오후 7시 30분. 개막콘서트.

구담의 웅장한 모듬북 울림과 프리소울이 들려준 희망찬 하모니의 남녀 중창을 비롯해 신유식의 흥겨운 색소폰 연주와 정열적인 엘 플라멩코에 이어 마지막 무대인 아프리카의 파워풀한 락까지 다양한 장르로 채워진 ‘2017 장미꽃 필 무렵’이 시작되었다.



13일 오후 2시. 특이한 분장을 한 광대들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나타났다.

호루라기, 뿔망치, 뚝어 뿔을 들고선 어리둥절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위바위보를 청한다. 컴퓨터와 게임기에 밀린 우리네 놀이들을 되짚어 보며 함께 탐구하는 놀이극.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놀이사용설명서>이다.

어색해하던 시민들도 한둘씩 모여 놀이에 참여 해본다. ‘출렁기, 참참참,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금세 광장은 놀이터가 되고 관객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집중도를 대신 말해준다. 광대들을 따라 한바탕 신나는 놀이를 하고나면 저녁밥을 먹자는 어머니의 음성과 함께 극이 끝났다. 아이들엔 신기한 경험이자, 어른들엔 지난날의 향수를 떠올리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축제의 열기가 한창이던 오후 4시. 시원한 장구소리가 청중들을 주목 시켰다. ‘연희컴퍼니 유희’가 보여준 <원시인 hot show>. 먼 옛날, 언어대신 소리와 몸짓으로 소통한 원시인들이 펼치는 한바탕 연희 난장. 원시인들이 선보이는 우리가락에 관객들의 어깨도 들썩인다. 어느덧 나타난



두 개의 커다란 박. 모두가 높게 쏘아올린 공에 박은 조금씩 깨어지고, 결국 터졌다! 사람들의 환호성도 함께. 이어지는 환상적인 장단의 장구 퍼포먼스로 관객 모두가 하나 되어 박수를 맞춰가며, 흥겨운 분위기로 장미공원을 가득 채웠다.

14일, 축제의 마지막 날. 해가 내리쬐고 있는 12시. 가발을 쓴 수상한 사람들이 엉뚱한 몸짓을 보였다. ‘프로젝트 모아’의 <바가와 본드>. 머물 곳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코믹마임으로 보여준 언버벌 거리극이었다. 엉뚱한 움직임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어느새 깔깔 웃음 소리가 퍼져 나온다. 관객들도 바가와 본드의 친구가 되어 극을 함께 만들어나갔다.(※vagabond, 방랑자)

장미정원에서는 파리에서 온 ‘엘자 코프’와 ‘삐에르 파’의 향기로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특유의 프랑스 감성이 묻어나는 서정적인 음악이 장미꽃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파리의 풍경을 그린 음유시인 같은 그들의 무대에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으며, 멜로디에 젖어 더욱 짙어진 장미의 향기에 축제가 무르익고 있었다.



마지막 무대는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의 무대였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모여든 관객들이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파워풀하다가 때로는 부드러운 몸짓의 댄서들과 관객들이 호흡을 나눴다. 익숙한 음악에 맞춰 간단한 동작들을 반복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유쾌한 춤판이 벌어졌다.

축제는 다양한 장미체험과 결혼사진 이벤트, 모바일 포토 콘테스트 그리고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모두가 사랑하는 꽃의 여왕, 장미. 무궁무진한 장미의 매력만큼 매년 풍성해진 ‘장미꽃 필(Feel) 무렵’은 모든 시민들이 어울려 함께하는 축제, 사랑받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년 장미가 필 무렵, 또 다시 찾아올 축제를 기대해 본다.



글 · 사진 | 이주현(문화정책실)



## 2017 '와룡민속한마당' &amp; 2017 '두류문화한마당'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주민 참여 문화축제

'2017 와룡민속한마당'과 '2017 두류문화한마당'이 지난 5월 21일 와룡공원과 5월 27일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연달아 개최되었으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 참여형 지역축제로 진행되었다.

달서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와룡민속한마당'과 '두류문화한마당'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축제로, '나도 가수다', '씨름대회', '웃놀이대회', '민속놀이마당', '가훈쓰기', '숫대 만들기', '캘리그래피', '부채 꾸미기', '전통혼례', '축하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어느 때보다 지역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활기찬 한마당 잔치로 진행되었다. 이들 한마당 축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풍성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와룡공원에서 5월 21일 개최되었던 '와룡민속한마당'의 최고의 관심거리는 매년 이어오고 있는 민속씨름왕선발전과 동 대항 웃놀이 대회 및 팔씨름대회로, 지역민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행사였다. 응원하는 주민들과 참여한 선수들 모두 축제를 즐기며, 지역간 화합과 계층 간의 소통을 나누고자 했다. 경기마다 공정한 심판과 페어플레이로 진행됐으며, 어린 세대들이 선의의 경쟁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 가훈쓰기, 숫대 만들기, 전통떡 만들기, 민속놀이 등 주민이 운영하는 체험부스와 달서구 새마을부녀회의 먹거리 마당도 함께 운영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지역축제를 만들어 나갔다. 민속씨름대회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린 주민노래자랑 '나도 가수다'(22개동 참여)와 오은주, 삼태기, 채미 등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번갈아가며 펼쳐지자, 구민들은 운동장 가운데로 모여 동네 가수는 물론, 대중가수들과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신명나는 축제 현장을 만들었다.



또한 5월 27일(토),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두류문화한마당'의 하이라이트는 다문화 부부의 전통혼례였다. 오후 4시부터 신랑 이웅경씨와 신부 응위엔티 뎀양의 실제 전통혼례가 친지와 관객들의 축하 속에 진행됐다. 더운 날씨였지만, 사모관대를 한 신랑과 혼례복을 입고 꽃가마를 탄 신부가 잔디공원 사이로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꽃가마 행렬을 따라 야외음악당으로 들어왔다. 축제기간 중 야외음악당에서 치르는 전통혼례였지만, 진지한 분위기 속에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혼례를 마쳤다.

이어 오후 5시, 개회식과 함께 펼쳐진 축하공연은 DJ 이대희의 부드러운 사회로 진행됐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무대인 유파스 공연단(대경대부설)의 퍼포먼스와 인칸토 앙상블의 시원한 중창, 김마스타밴드의 열정적인 밴드공연, 가수 추가열의 감칠맛 나는 축하공연이 차례로 이어졌는데, 이날 추가열은 7번이나 앵콜을 받아 노래했다. 또 주민노래자랑인 '나도 가수다' 코너를 축하공연과 번갈아 배치해 구민이 참여하는 축하무대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공연 이외에도 작은 결혼식장 홍보와 왕벚나무 알리기를 비롯해, 체험마당(캘리 책갈피 만들기, 부채 꾸미기)과 민속놀이마당(죽방울 만들기, 고누놀이, 제기차기, 투호)에도 구민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지역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어나갔다.



글 | 김은주(문화정책실) 사진 | 달서문화재단



# 2017 신진작가 공모 초대전

지역 미술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 계승해 나갈 패기와 참신함을 갖춘 「2017 신진작가 공모·초대전」에 선정된 작가 3인의 전시가 2017. 8. 16 ~ 9. 7 개최됩니다.

**전시기간** 2017.8.16~9.7

**전시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 응모자격**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994. 1. 1 ~ 1977. 12. 31세의 작가

**■ 공모부문**

시각예술 전문(회화, 판화, 조소, 공예, 설치, 미디어 등)

**■ 접수방법**

소정 양식의 신청서, A4 size 포트폴리오  
(작품사진 10매 이상, 작품사진 하단에 명제 등 작품설명 기재)  
※ 신청서 :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www.dscf.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심사방법**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 초대작가 지원사항**

- 선정작가 3명
- 개인전 개최
- 전시 홍보물 제작
- 작품운송비 등 소정금액 지원
- 전시장 면적 389㎡(약 100평)으로 최근2~3년 내의 작품을 전시장에 설치하여야 함

**■ 원서접수**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유효함

**■ 심사결과발표**

7월 초순 선정 작가 개인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2017. 7. 3 ~ 7. 7

**■ 문의처**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 053-584-8720

## 달서생활문화센터는 달서구민에게 열린 생활문화공간입니다

달서구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와 풀뿌리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생활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용시간** 평일(10~20시) 토요일(10시~15시) 일/공휴일 휴관

**신청기간** 매 분기별 마지막 달 20일부터 27일까지(3개월 단위 사전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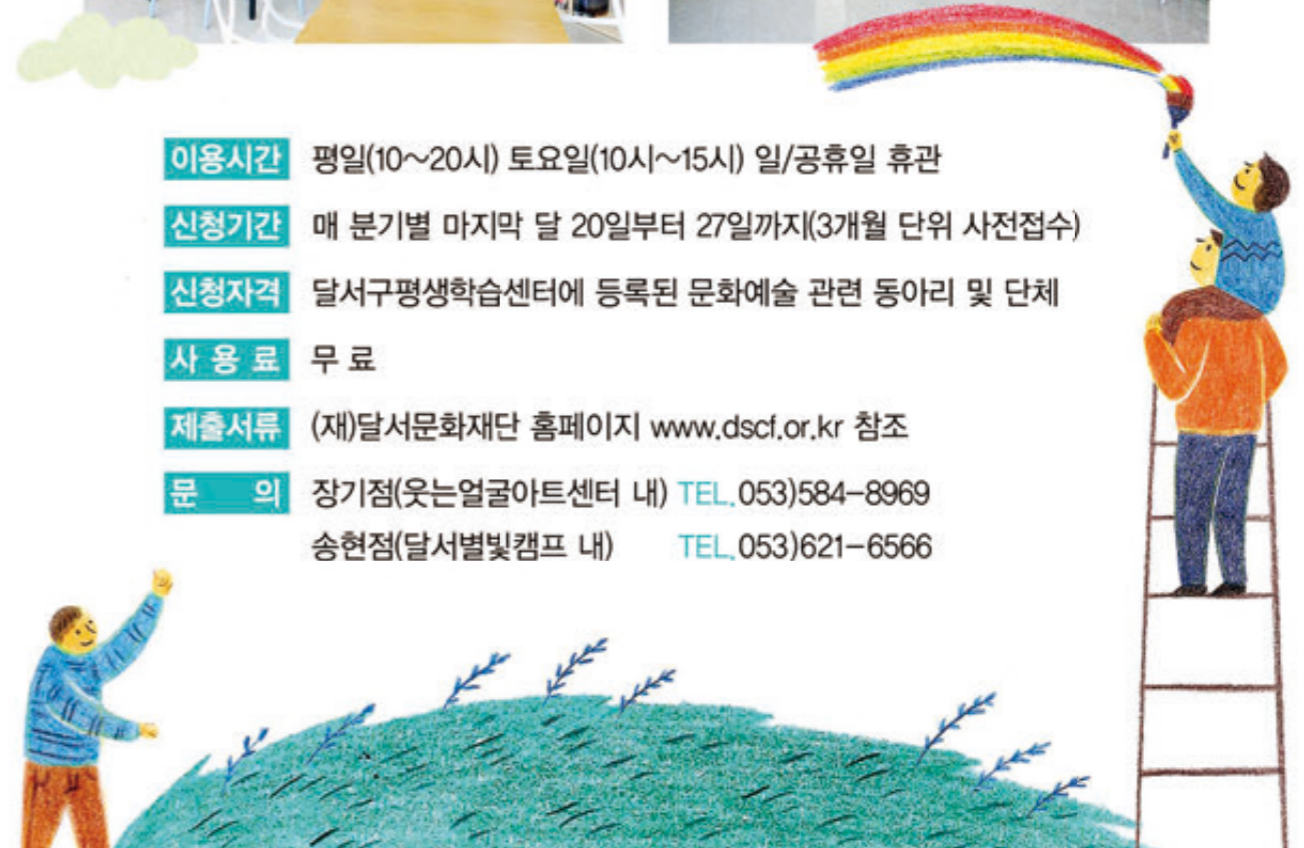
**신청자격** 달서구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및 단체

**사용료** 무료

**제출서류** (재)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scf.or.kr 참조

**문의** 장기점(웃는얼굴아트센터 내) TEL.053)584-8969

송현점(달서별빛캠프 내) TEL.053)621-6566







달서문화재단  
DALSEON CULTURE FOUNDATION